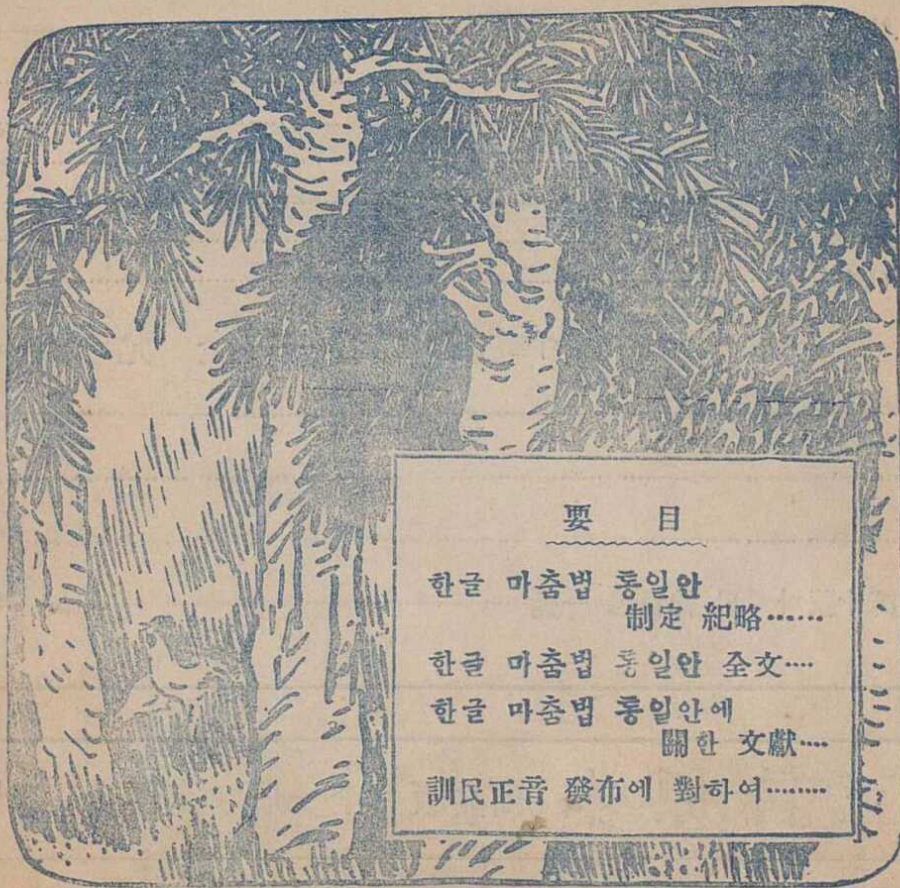


昭和七年五月一日 (第三種郵便物認可)
昭和九年一月一日 (每月一回一日發行)

한글

第十號

한글 맞춤법 통일안 특집



要目

- 한글 맞춤법 통일안
制定 紀略……
- 한글 맞춤법 통일안 全文……
-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關한 文獻……
- 訓民正音 發布에 對하여……

具
聖
書

具
聖
書

朝鮮語學會編輯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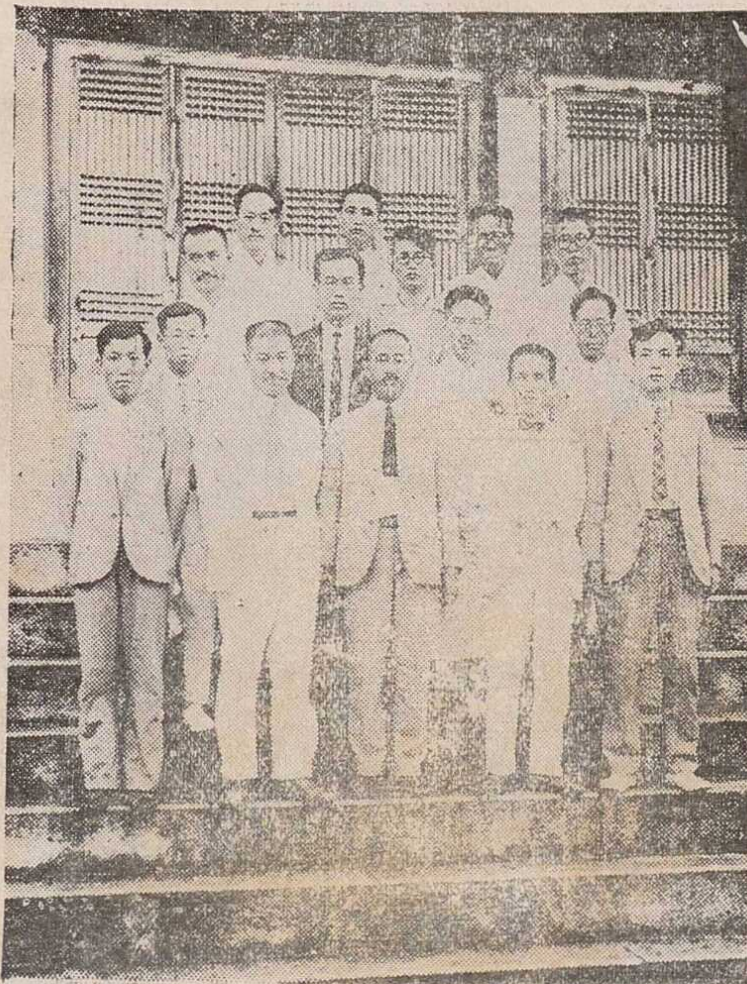
開城會議

한글 맞춤법
등일회 위원

—記念撮影—

1933年 1月 4日

401頁 記事 参照



〔下〕

華溪寺會議

한글 맞춤법
등일회 위원

—記念撮影—

1933年 8月 2日

401頁 記事 参照



6818074



한글 맞춤법 통일안 發表 光景
1933年 10月29日(한글날) 明月館 本店에서
(405頁 記事 參照)



統一案 委員 慰勞會 光景
1933年 11月 8日 明月館 本店에서
(406頁 記事 參照)

비 리

☐그림 {開城會議, 華溪寺會議, 韓語 맞춤법 통일안 發表 光景, 統一案 委員 慰勞會 光景}

☐特輯을 념에 대하여

☐한글 맞춤법 통일안 制定의 經過 記略李 允 宰...(381)

☐한글 맞춤법 통일안 全文(383)

☐去年 今日的 回顧(各 新聞 記事 抄錄) (400)

●開城 會議의 記事(401)

●華溪寺 會議의 記事(404)

●統一案 發表時의 記事(404)

●統一案 發表 以後의 記事(406)

●各 新聞의 社說과 時評 (407)

綴字法 統一(東亞)(407)

綴字 統一 會議(中央)(804)

綴字 問題(朝鮮)(409)

한글 「愛用運動」을 提唱함(朝鮮)(410)

한글 統一案 完成을 睹고(東亞)(411)

한글날(朝鮮)(411)

☐訓民正音 發表에 대하여(라디오 記念 放送)金 允 經...(413)

☐彙報(416)

☐雜同散異(417)

☐本會 記事(418)

☐第一號부터 第十號까지의 總目錄 一覽(420)

訓民正音原本(寫眞版) 全一冊 定價金 二十錢

周時經先生遺稿 全一冊 定價金 一圓

한글 歷代選 全一冊 定價金 一圓



特輯을 범에 대하여

우리 朝鮮語學會에서 豫定한 事業中の 하나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完成하여 세상에 發表한것은 朝鮮語學史上에 新記錄을 지었다 하리니, 특히 이를 記念삼기 위하여, 이 案을 制定한 經過事況과 統一案 全文 및 當時 一般 輿論을 蒐集하여, 이 特輯을 내는것이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의 경과 기략

(朝鮮語 綴字法 統一案 制定의 經過 記略)

李 允 宰

우리 조선에서 한글 운동이 일어난것이 이럭저럭 四十여년을 지나왔다. 이를 다른 나라에서의 그것에 견주면, 여간 뒤떨어진 일이 아니며, 세력도 더 말할수 없이 미미하였다고 볼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사이에 한것에서 무슨 신통한 것 한가지라도 들추어내어놓을만한것이 없다. 다만 수백년동안 우리로서 우리 글을 무한히 멸시하고 천대하여 전연 돌아보지도 아니하던것을, 지금 와서는 이와 아주 면판으로, 서적에나, 신문에나, 잡지에나, 기략 일용행문에까지 모두 한글을 쓰게 되며, 전 민중이 새삼스럽게 이것을 무쌍의 보물로 알고 더욱더욱 이것의 애용(愛用)을 주장하기까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한글 운동의 한 보람이라고 할는지?

우리 글이란 훈민정음(訓民正音) 이후 그릇된 그대로 정려 못된 그대로 버려두

어 오늘날까지 내려왔으며, 지금은 각 사람 각자가 제멋대로 쓰는것이 자기 법이 되어 종작을 잡을수 없으며, 오늘날 이렇게 불규칙 무통일한 글이 되고말았다. 이에 대하여 뜻 있는이로서 누가 통란하지 아니할이가 있으랴. 그사이 관변으로서는 교과서에 쓸 맞춤법(綴字法)을 개정함이 이미 三四차례 이르렀고, 민간으로서는 표음식(表音式) 혹은 문법식(文法式)의 맞춤법을 쓰기 시험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글이 전보다 더욱 혼란하기 우심하여, 한 통일한 새 방법의 글이 하루바삐 이 세상에 나오기를 일반 사회에서 기대함이 더욱 깊었다.

이렇듯 세상사람의 요구가 절박한것은 물론이어나와, 보다더 一九二九년 한글날로써 각계 인사의 발기로 조선어 사전 편찬회(朝鮮語 辭典 編纂會)가 성립되고, 이를 이어 맞춤법, 말본(文法); 가로쓰기(橫

書綴), 한문글씨 줄임(漢字制限), 외국 말 소리 적기(外國語音表記)등 여러가지를 제정하자는데 것이 조선어학회의 새 계획으로 작성되었다. 이중에 사전 편찬에 직접 관련되는 맞춤법이 무엇보다도 더욱 긴급함을 알았다. 그리하여 一九三〇년 십이월 十三일 조선어학회 총회에서 맞춤법 통일안 위원을 내어, 이로부터 맞춤법 제정을 착수하게 되었다. 그 경과 사항은 대개 아래와 같다.

1. 총회에서 뽑힌 권덕규, 김윤경, 박현식, 신명균, 이극로, 이병기, 이운재, 이희승, 장지영, 정열모, 정인섭, 최현배등 十二인의 통일안 위원은 一九三〇년 십이월부터 초안 작성을 시작하여, 一九三一년 七月 九일까지 초고(草稿) 六十一항목이 탈고되었으며, 그것을 다시 보충증정하여 一九三二年 십이월에 이르러 초안 九十一항목이 작성되었다. 여기까지의 위원들의 모인 회수는 六十九회요, 허비한 시간은 二백 十一시였다.

2. 이렇게 작성된 초안으로 토의하기로 작정하고, 一九三二年 십이월 二十六일부터 一九三三年 일월 四일까지 개성(開城)에서 회의를 열고, 원 위원 十二인과 증선된 위원 김선기, 이갑, 이만규, 이상춘, 이세정, 이탁 제씨를 더하여 모두 十八인의 위원으로써 토의하여 제一독회를 마치고, 이를 다시 수정하기 위하여, 권덕규, 김선기, 김윤경, 신명균, 이극로, 이운재, 이희승, 장지영, 정인섭, 최현배등 十인을 수정위원으로 뽑아 맡기었다. 여기에서 모인 회수는 十七회요, 토의 시간은 五十九시였다. 또 이뒤에 수정위원회로 모인 것이 六회, 四十四시간과, 소위원회로 四회, 二十二시간이니, 전후 二十七회, 一백 二十五시간이 되었다.

개성 회의 때에는 전 위원 十일간 유련비와 왕래 차비까지 전부를 공탁(孔濶)

씨께서 자담하여 주시었음을 감사하여 말지 아니한다.

3. 개성 회의 이후 수정위원회의 수정으로 七十八항목으로 되었으며, 소위원회에서 (이미 의론하여 작성된 것을 정리하는데까지 다수인이 매번매번 모이기 어렵운고로 그것을 三四인의 소위원을 내어 맡긴것) 다시 수정하여 七十항목으로 고치었다. 이것을 다시 토의하기 위하여, 一九三三年 七月 二十五일부터 八月 三일까지 화계사(華溪寺)에서 제 二독회를 열고, 十五인(박현식, 이극로, 장지영 三씨는 특별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으로 토의를 마치고, 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정리위원 권덕규, 김선기, 김윤경, 신명균, 이극로, 이운재, 이희승, 정인섭, 최현배등 九인을 뽑아, 안 전체를 정리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모인 회수는 十六회요, 토의 시간은 五十四시였다. 그뒤 정리위원회로 모인 것이 六회, 二十시간이며, 또 소위원회로 모인 것이 六회, 十八시간이니, 전후 二十八회, 九十二시간이 된다.

화계사 회의 때에는 송진우(宋鎭禹), 김성수(金性洙) 및 무명씨 이 세분께서 많이 힘써 주심을 입었다.

4. 화계사 회의의 안을 정리위원회에서 원안 四十五항목, 부록 十항목으로 작정하고, 다시 소위원회에서 원안 六十五항목, 부록 九항목으로 고치었으며, 이것을 가지고 정리위원들은 여러군대의 소유처와 모순점이 있는것을 발견하고, 전 위원 三분지二的 동의(同意)로써 문제삼기로 하고, 통일안 위원 전체에 투표식(投票式)을 행하여 그중 다수점을 취하여 개정하였다.

5. 정리위원의 정리까지가 끝났으므로, 통일안 위원은 이 통일안을 一九三三年 十月 十九일에 열린 임시총회에 제출하

여, 一二회의 수정으로써 통과되었다. 이로써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완전히 제정된 것이다.

이 사이에 위원들의 토의용(討議用)으로 등사본(謄寫本)으로 六회, 인쇄본(印刷本)으로 四회나 배부한 일이 있었다. 인쇄본은 한성도서주식회사(漢城圖書株式會社)의 신세들 진것을 감사하여진다.

이와 같이 전후 三개년동안에 모인 회수가 一百 二十 五회, 허비한 시간수가 四百 三十 三시간, 실로 적지 아니한 노력으로써 이 통일안이 나게 된 것이다.

요즘전대 우리는 세종대왕(世宗大王)의 창의적(創意的) 정신과 한헌생(周時經) 스승의 희생적 노력을 체득(體得)하여, 가장 신중히 고려하며 가장 엄밀히 처리한 것이 이 통일안의 정신이요, 결코 어느 일개인의 독단적 의사를 맹종(盲從)하였거나 몇개인의 우물우물하여 만든것과는 달라서, 학리적(學理的) 기초 위에서 다수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룬것이다. 즉

위원 十 八인 중에도 그 연구의 태도와 문법적 견해가 각기 다른것만큼, 의견의 불일치한 때가 많아서, 토의중에는 심지어 피차에 정의를 손상할 정도까지의 격론도 없지 아니하였다. 이러한것을 모두 조화하고 절충하여 가장 합리적(合理的)으로 성안한것이니, 이것은 전체를 통하여 어느 한편에만 치우친 일이 절대로 없는것이다. 이 의미에서 통일안이란 이름이 더욱 적당하다 한다.

우리가 영구히 기념할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민간에 발표하시던 제 四백 八十七회의 한글날 이러한 명절로써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우리 일반 사회에 발표하게 됨을 더욱 기뻐하는바이다. 이것으로써 우리의 사업이 완성된것이 아니라 만리장정에 겨우 一보를 내어놓은대 지나지 않는다 생각한다. 우리는 더욱 앞으로 꾸준히 힘써서 나아갈뿐이다.

(一九三三年 十月 二十九日 한글 맞춤법 통일안 發表時 經過報告의 草稿)

한글 맞춤법 통일안 全文

머 리 말

本會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制定하여 이에 一般 社會에 發表한다.

이 統一案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그 經過의 概略을 말하면, 一九三〇年 十二月 十三日 本會 總會의 決議로 한글 맞춤법의 統一案을 制定하기로 되어, 처음에 委員 十二人(權憲奎, 金允經, 朴顯植, 申明均, 李克魯, 李秉岐, 李允宰, 李熙昇, 張志暎, 鄭烈模, 鄭寅燮, 崔鉉培)으로써 二個年間 審議를 거듭하여, 一九三二年 十二月에 이르러 맞춤법 原案의 作成을 마쳤다. 그리고 또 委員 六人(金善琪, 李

鉉, 李萬珪, 李常春, 李世楨, 李鐸)을 增選하여 모두 十八人의 委員으로써 開城에서 會議(一九三二年 十二月 二十五日—一九三三年 一月 四日)를 열어 그 原案을 逐條討議하여 第一讀會를 마치고, 이를 다시 修正하기 위하여, 修正委員 十人(權憲奎, 金善琪, 金允經, 申明均, 李克魯, 李允宰, 李熙昇, 張志暎, 鄭寅燮, 崔鉉培)에게 맡기었다. 그후 六個月을 지나 대체의 修正이 끝났으므로, 또 委員 全體로써 다시 華溪寺에서 會議(一九三三年 七月 二十五日—八月 三日)를 열어 그 修正案을 다시 檢討하여 第二讀會를 마치고, 또 이를 全體的으로 整理하기 위하여 整理委員

九人(權憲奎, 金善琪, 金允經, 申明均, 李克魯, 李允宰, 李熙昇, 鄭寅燮, 崔鉉培)에게 맡기어 最終의 整理가 다 마치었으며, 本年 十月 十九日 本會 臨時總會를 거치어 이를 施行하기로 決議되니, 이로써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비로소 完成을告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統一案이 完成하기까지에 三箇年의 時日을 걸치어, 一百 二十五回의 會議가 있었으며, 그 所要의 時間數로는 실로 四百 三十三時間이란 적지 아니한 時間에 미치지 못하니, 과연 文字 整理란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님을 알겠다. 우리는 이러듯 가장 嚴正한 態度와 가장 慎重한 處理로써 끝까지 最善의 努力을 다하여, 이제 이 統一案을 만들어서 우리 民衆의 앞에 내어 놓기를躊躇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만 오늘날까지 混亂하게 써오던 우리글을 한번 整理하는 첫 試驗으로 아나니, 여기에는 또한 不備한 點이 아주 없으리라고 스스로 斷定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時代의 進歩로 여러가지 學術이 날로 달라감을 따라, 이 한글에 있어서도 그 影響이 없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本會는 앞으로 더욱 이에 留意를 더하고자 하는 것이니, 一般 社會에서도 때로 많은 가르침이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統一案이 完成함에 이르기까지 精神的乃至 物質的으로 많은 聲援과 두터운 襄助를 주신 京鄉 有志人士에게, 특히 孔濯 宋鎮禹 金性洙 其他 諸氏와 各 報章機關 및 漢城圖書株式會社에 對하여 깊이 感謝의 뜻을 表한다.

한글 頒布 第四百 八十七回 紀念日

朝鮮語學會

目次

總論

各論

第一章 字母

第一節 字母의 數와 그 順序

第二節 字母의 이름

第二章 聲音에 關한것

第一節 된소리

第二節 舌側音 ㄹ

第三節 口蓋音化

第四節 ㄷ바침 소리

第三章 文法에 關한것

第一節 體言과 助詞

第二節 語幹과 語尾

第三節 規則 用言

第四節 變格 用言

第五節 바침

第六節 語源 表示

第七節 品詞 合成

第八節 原詞와 接頭辭

第四章 漢字語

第一節 홀소리(母音)만을 變記할것

第二節 닿소리(子音)만을 變記할것

第三節 닿소리(子音)와 홀소리(母音)를 함께 變記할것

第四節 俗音

第五章 略語

第六章 外來語 表記

第七章 띄어쓰기

附錄

一. 標準語

二. 文章 符號

한글 맞춤법 통일안

總論

- 一. 한글 맞춤법(綴字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語法에 맞도록 함으로써 原則을 삼는다.
- 二. 표준말은 大體로 現在 中流 社會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三. 文章의 各 單語는 띄어 쓰되, 로는 그
뜻 말에 붙여 쓴다.

各 論

第一章 字 母

第一節 字母의 數와 및 順序

第一項 한글의 字母의 數는 二十 四字로
하고, 그 順序는 다음과 같이 定한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附記) 前記의 字母로 적을수가 없는
소리는 두개 以上の 字母를 어
울러서 적기로 한다.

ㄱ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第二節 字母의 이름

第二項 字母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定한
다.

ㄱ 기역 ㄴ 니은 ㄷ 디귤 ㄹ 러울
ㅁ 미음 ㅂ 비읍 ㅅ 시읏 ㅇ 이응
ㅈ 지읏 ㅊ 치읏 ㅋ 키 ㆁ 티을
ㆅ 피을 ㆆ 히을

ㆇ 아 ㆈ 야 ㆉ 어 ㆊ 여 ㆋ 오
ㆌ 요 ㆍ 우 ㆎ 유 ㆏ 으 ㆐ 이

(附記) 다음의 글자들은 아래와 같이
이름을 定한다.

ㄱ 쌍기역 ㆁ 쌍디귤 ㆅ 쌍비읍
ㆆ 쌍시읏 ㆇ 쌍지읏

第二章 聲音에 關한것

第一節 된소리

第三項 한 單語 안에서 아무 뜻이 없는
두 音節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모두
아래 音節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
다.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甲 乙
아빠 압바

오빠	음바
어깨	억개
로끼	룻기
새끼	샛기
깨끗하다	깻긱하다
어떡하다	엇덕하다
어찌하다	엇지하다
여쭙다	옛줍다
나부끼다	나붓기다
아끼다	앗기다
부끄럽다	붓글엷다
거꾸루	깃꾸루

第二節 舌側音 ㄹ

第四項 在來에 舌側音 ㄹ을 ㄹ으로 적
던것을 ㄹ로 적는다.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甲	乙
걸레	걸네
날런다	날닌다
흘러	흘네
빨리	빨네
얼른	얼네

第三節 口蓋音化

第五項 한글의 字母는 다 제 音價대로
읽음을 原則으로 한다. 따라서 「다 더
도 듀 디」를 「자 저 조 주 지」로, 「랴
티 료 류 리」를 「차 처 초 추 치」로 읽
음을 認定하지 아니한다.

(附記) ㄷ ㄷ으로 끝난 말 아래에 從
屬的 關係를 가진 「이」나 「히」
가 올적에는 그 ㄷ ㄷ이 口蓋
音化되는것을 例外로 認定한
다.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
다.)

例 甲	乙
말이	바치
굳이	구지
할이다	할치다

걸히다	거치다
묻히다	무치다
달히다	다치다

[附記 二] ㄴ은 ㄹ(ㄱ ㅋ ㆁ ㆁ) 위에
서 ㄱ蓋音化되는것을 認定한다。
例 저녁 바꾸니 누구뇨 가더냐

第四節 ㄷ 바침 소리

第六項 아무 까닭이 없이 ㄷ 바침으로
나는 말 가운데 ㄷ으로만 나는것이나
ㅅ으로도 나는것이나를 勿論하고 在來
의 버릇을 따라 ㅅ으로 統一하여 적는
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一) ㄷ으로만 나는 바침

例 (1) 副詞的 接頭語

甲	乙
짓밟다	질밟다
짓몰다	질몰다
덧붙이다	던붙이다
엇먹다	얼먹다
빚나가다	빌나가다
헛되다	헐되다

(2) 冠形詞

웃	울
옛	엘
첫	첸
햇	한

(3) 副詞

그릇	그를
무릇	무를
사릇	사를
얼핏	얼필
걸핏하면	걸필하면
자칫하면	자칠하면

(二) ㅅ으로도 나는 바침

따뜻하다	따뜩하다
빙긋빙긋	빙금빙금
반듯하다	반든하다
잘못하다	잘몬하다

第三章 文法에 關한것

第一節 體言과 도

第七項 體言과 도가 어우를적에는 소리
가 變하거나 아니하거나를 勿論하고 다
제 原形을 바꾸지 아니한다。(甲을 取
하고 乙을 버린다。)

例 甲	乙
꽃이	꽃시
말이	마치
꽃에	고체

第二節 語幹과 語尾

第八項 用言의 語幹과 語尾는 區別하여
적는다。

例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은 먹을
할고 할가 할지

[附記] 다음과 같은 말들은 그 語源이
分명한것은 본 語幹과 語尾를
區別하여 적고, 그 語源이 分
명하지 아니한것은 본 語幹과
語尾를 區別하여 적지 아니한
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1) 그 語源이 分명한것

甲	乙
넘어지다	너머지다
늘어지다	느러지다
떨어지다	떠러지다
돌아가다	도라가다
들어가다	드러가다
엎어지다	어퍼지다
홀어지다	호러지다

(2) 그 語源이 分명하지 아니한것

나타나다	날아나다
불거지다	불어지다
부러지다	불어지다
자빠지다	잡바지다
쓰러지다	쓸어지다

第三節 規則 用言

第九項 다음과 같은 動詞은 그 語幹 아래 다른 소리가 붙어서 그 뜻을 바꿀 적에 소리가 變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묻지 아니하고 다 그 原形을 밝히어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甲	乙
말기다	맞기다
뿔기다	쪼기다
솟구다	소꾸다
갈리다	갈니다
걸리다	걸니다
먹이다	머기다
보이다	보히다
낙이다	낙기다
할이다	할치다
돋우다	도두다
달히다	다치다
잡히다	자피다
묻히다	무치다

第四節 變格 用言

第一〇項 다음과 같은 變格 用言을 認定하고, 각각 그 特有한 變則을 좇아서 語幹과 語尾가 變함을 認定하고 變한대로 적는다.

(一) 語幹의 끝 ㄷ이 ㄴ ㅂ과 「오」 우에서 주는 말

例 (1) ㄴ 우에서
울다 우나 우니
길다 기나 기니
(2) ㅂ 우에서
놀다 놀니다
갈다 갑니다
(3) 오 우에서
놀다 노오니
갈다 가오니

〔附記〕 ㄷ ㅌ ㅍ ㅊ 우에서도 주는 일이 있지만, 안 주는것으로 原則을 삼되, 尊敬의 「시」와 未

來의 ㄷ 우에서는 도모지 나지 아니하는것으로 한다。

例 놀다(遊) 노시다 놀사람
알다(知) 아시다 알사람

(二) 語幹의 끝 ㅅ이 홀소리(母音) 우에서 줄어질적

例 잇다(續) 이어 이으니
낫다(癒) 나아 나오니

(三) 語幹의 끝 ㅎ이 줄어질적

例 하얏다 하여니 하얀 하여면

(四) 語幹의 끝 ㄷ이 홀소리(母音) 우에서 ㄷ로 變할적

例 듣다(聽) 들어 들으니
묻다(問) 물어 물으니

(五) 語幹의 끝 ㅂ이 홀소리(母音) 우에서 「우」나 「오」로 變할적

例 돕다(助) 도와 도우니
굽다(妍) 고와 고우니
눅다(臥) 누워 누우니
춡다(寒) 추워 추우니

(六) 語尾 「아」나 語幹의 아래에 오는 「았」이 「여」나 「였」으로 날적

例 하다 하여 하여도 하여야
히였으니 히였다

〔附記〕 「하야」의 경우 하나만은 또한 「야」도 認定한다。(甲形은 認定하되, 乙形은 모두 認定하지 아니한다.)

例 甲 乙
그리하야 하여도 하았으니 하았다

(七) 語尾 「어」와 語幹 아래에 오는 「였」이 「러」나 「렸」으로 날적

例 이르다 이르러 이르렀다
푸르다 푸르러 푸르렀다
누르다 누르러 누르렀다

(八) 語幹의 끝 音節 「르」의 다음에 語尾 「어」와 語幹 아래에 「였」이 을적에 一가 줄고 ㄷ이 ㄷ ㄷ로 날적

例 고르다 골라 골랐다

例 마개 주검 무덤 을개미 귀머거리
너무 비토소

第一四項 名詞 아래에 「이」가 붙어서 他
詞로 轉成될적에는 口蓋音化의 有無를
勿論하고 그 名詞의 原形을 바꾸지 아
니한다。

例 집집이 곳곳이 살살이 곰배팔이
애꾸눈이

第一五項 名詞 아래에 「이」 以外의 母
音(母音)가 붙어서 他詞로 變하거
나 뜻만이 變할적에는 그 말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끄트머리 지프래기 지붕

第一六項 名詞나 語幹의 아래에 받소리
(子音)로 첫 소리를 삼는 音節이 붙어
서 他詞로 變하거나 본 뜻만이 變할적
에는 그 名詞나 語幹의 原形을 바꾸지
아니한다。

例 낚시 옆랭이 잎사귀
웁기다 굽직하다 널적하다
엷둑엷둑하다 엷죽엷죽하다

〔附記〕 左記의 말은 그 語源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악죽악죽하다 각작각작하다
얼숙하다 널직하다 말숙하다

第一七項 語幹에 「브」가 붙어서 他詞로
轉成하거나 뜻만이 變할적에는 그 語幹
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甲
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甲	乙
슬프다	숨브다
아프다	얇브다
고프다	굵브다
미쁘다	밀브다
나쁘다	낫브다
구쁘다	긋브다
바쁘다	말브다
기쁘다	깃브다
이쁘다	잇브다

가쁘다 갈브다

第一八項 動詞의 語幹에 「치」가 붙어서
된 말은 그 語幹의 原形을 밝히어 적는
다。(甲을 取하고 乙 丙을 버린다。)

例 甲	乙	丙
받치다(支)	받치다	바치다
뺨치다	뺨치다	뺨치다
엮치다	엮치다	
덮치다	덮치다	
놓치다	놓치다	노치다

第一九項 用言의 語幹에 「이」나 「히」나
또는 「후」가 붙어서 動詞로 轉成한것
은 그 語幹의 原形을 바꾸지 아니한다。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甲	乙
잡히다	자치다
낮히다	나치다
좁히다	조피다
밝히다	말키다
넓히다	널피다
높히다	노피다
갖추다	가추다
낮추다	나추다
늦추다	느추다
맞추다	마추다

第二〇項 語源의 語幹에 다른 소리가 붙
어서 로로 轉成될적에는 그 語幹의 原
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조차 부터 마저

第二一項 「하다」가 붙어서 되는 用言의
語源의 語根에 「히」나 「이」가 붙어서
副詞나 名詞가 될적에는 그 語源을 밝
히어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
다。)

例 甲	乙
답답히	답더피
답답이	답더비
곰곰이	곰고미
반듯이	반드시

반듯반듯이 반듯반드시

〔附記〕「하다」가 붙지 아니하는 語源的 語根에 「히」나 「이」나 또는 다른 소리가 붙어서 副詞나 名詞로 될적에는 그 語根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군덕덕기 오라기

第二二項 語源的 語根에 「하다」가 붙어서 用言이 된 말은 그 語根의 原形을 바꾸지 아니한다。

例 착하다 맥하다 급하다 속하다

第二三項 動詞의 語幹에 「이 히 기」가 붙을적에 語幹의 끝 音節의 홀소리(母音)가 그 1 소리를 잃어서 달리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原形을 바꾸지 아니한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甲	乙
먹이다	맥이다
박이다	백이다
속이다	석이다
죽이다	직이다
뜨이다	떡이다
잡히다	쩍히다
먹히다	떡히다
말기다	멜기다
벗기다	뻗기다
쫓기고	찢기다
숨기다	쉽기다
뜯기다	떨기다

〔附記〕 이 境遇에 둘이 합하여 아주 먼 音節로만 나는것은 소리대로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 丙을 버린다。)

例 甲	乙	丙
내다	내이다	나이다
깨다	깨이다	까이다
재다	재이다	자이다

第二四項 擬聲 擬態的 副詞나 「하다」가 붙어서 用言이 아니 되는 語根 아래에

「이」가 붙어서 名詞나 副詞로 될적에는 그 語根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기러기 피꼬리 뼈꾸기 따짜꾸리
 귀뜨라미 깨구리
 코끼리 가마귀 살서리 덕피리
 뼈꾸기 얼루기 떡버리

第二五項 語源的 語根에 「이다」가 붙어서 된 用言은 그 語根을 밝히어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甲	乙
움죽이다	움즈기다
번득이다	번드기다
번적이다	번저기다

第二六項 用言의 語幹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된것이라도, 그 뜻이 이주면 말로 變한것은 그 語幹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바치다(納) 드리다(獻) 부치다(送)
 이루다(成)

第二七項 바침이 있는 用言의 語根이나 語幹에 接尾辭가 붙어서 單 獨立한 單語가 成立될적에는 그 接尾辭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1) 알다(얼다)

甲	乙
발광다	박알다
노랄다	늘알다
파랄다	팔알다
가말다	감알다
벌정다	뽕얼다
누령다	늘얼다
피령다	필얼다
거명다	김얼다

(2) 엮다(읍다)

미엮다	민엮다
무엮다	뭇엮다
우습다	웃읍다

드럽다	들엽다
간지럽다	간질엽다
서느럽다	서늘엽다
부드럽다	부들엽다
무겁다	묵엽다
부끄럽다	부끄엽다
시끄럽다	시끌엽다
징그럽다	징글엽다
어지럽다	어질엽다

[附記] 「없다」만은 같라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甲 乙

개없다	개없다
시름없다	시름없다
부질없다	부지없다
상없다	

第七節 品詞 合成

第二八項 둘 以上の 品詞가 複合할적에는 ㅅ의 ㅅ이 接變하거나 아니하거나를 勿論하고 각각 그 原形을 바꾸지 아니한다。

(一) 變하지 아니할적

例 ㄴ안 ㅅ안 ㅁ안 ㄷ안 ㅂ안

닭의알	집오리	물오리	속웃
손이귀	홀아비		

但 語源이 不分明할적에는 그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오라비

(二) 變할적

例 (1) ㅅ소리(子音)와 ㅅ소리 사이
밥물 국물 맛먹다 반대다 옆문
젓몸살

(2) ㅅ소리(子音)와 ㅅ소리(母音)
「이」(야 어 요 유) 사이(이 境
遇에는 아래의 ㅅ소리의 첫소
리로 口蓋音化한 ㅅ 소리가 ㅅ
난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
린다。)

甲	乙
갓양	갓냥
갓엿	갓녯
담요	담뇨
편웃	편웃
밭일	밭닐
앞일	앞닐
집일	집닐
공일	공닐 (개지 하는 일)

[附記] 그 ㅅ 品詞의 獨立한 소리 ㅅ이 變할적에는 變한대로 적되, 두 ㅅ을 區別하여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甲 乙

할아버지	한아버지
할머니	한어머니

第二九項 ㅅ바침이 있는 말과 ㅅ 말과 어우를적에는 (1) 나기만 하는것은 ㅅ는 대로 적고, (2) 도모지 나지 아니하는것은 아니 ㅅ는대로 적는다。

例 (1) 물새 불꽃
(2) 무자위 부샷

第三〇項 複合名詞 사이에서 나는 사이 ㅅ은 ㅅ소리(母音) 아래에서 날적에는 ㅅ의 ㅅ소리에 ㅅ을 받치고, ㅅ소리(子音)와 ㅅ소리 사이에서는 모무지 적지 아니한다。

例 ㅅ소리(母音) 밑
뒷간 ㅅ집 나뭇매 ㅅ뱃대 ㅅ뭇
ㅅ발

第三一項 ㅅ과 같은 말은 ㅅ소리로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甲 乙

췌살	조ㅅ살
차살	차ㅅ살
매살	매ㅅ살
해살	해ㅅ살
수개	송개
암개	얌개

조판 종밖
안팎 앞밖

第八節 原詞와 接頭辭

第三二項 接頭辭와 語根이 어울러서 한 單語를 이룰적에는 소리가 接變하거나 아니하거나 그 原形을 바꾸지 아니한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甲 乙
짓이긴다 짓니긴다
엇나간다 언나간다
셋노랴다 셋노랴다
싯누렁다 싯누렁다

第四章 漢字語

漢字音은 現在의 標準 發音을 좇아서 表記함으로써 原則을 삼는다。따라서 從來의 漢字 字音에 規定된 字音을 아래와 같이 고치기로 한다。

第一節 홀소리만을 變記할것

第三三項 ㄴ字 音은 되다 ㅌ로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甲 乙
간친(懇親) 곤친
밭해(渤海) 불해
사상(思想) 사상
자녀(子女) 자녀

第三四項 ㄷ字 音은 모두 ㅌ로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다 버린다。)

例 甲 乙
개량(改良) 기량
내외(內外) 내외
대용(代用) 대용
매일(每日) 매일
색채(色彩) 색채
애석(愛惜) 애석
재능(才能) 재능
책자(冊子) 책자

태모(胎母) 티모
해변(海邊) 히변

第三五項 ㅅ ㅆ ㅈ을 첫소리로 삼는 ㅌ ㅋ ㆁ ㅍ를 ㅌ ㅌ ㆁ ㅍ로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甲 乙
사회(社會) 샤회
서류(書類) 셔류
소년(少年) 쇼년
수석(水石) 슈석
장안(長安) 장안
정중(鄭重) 정중
조선(朝鮮) 쵸션
중심(中心) 중심
차륜(車輪) 차륜
처자(妻子) 처자
초부(樵夫) 초부
추수(秋收) 추슈

第三六項 「계 폐 해 매」는 本音대로 적고, 「세 제 체」의 ㄷ는 ㅌ로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1) 甲 乙
계수(桂樹) 계슈
폐부(肺腑) 폐부
혜택(惠澤) 혜택
연매(連袂) 련매
(2) 세계(世界) 세계
제도(制度) 제도
체류(滯留) 체류

第三七項 ㅅ ㅆ ㅈ을 첫 소리로 삼는 ㅌ를 가진 字音은 그 本音대로 내는것을 原則으로 삼고, 特別한 境遇에 限하여 例外를 둔다。

例 슬하(膝下) 습관(習慣) 승리(勝利)
즉시(即時) 증인(證人) 증조(曾祖)
측량(測量) 층계(層階)
例外 금실(琴瑟) 질책(叱責)
편집(編輯) 법칙(法則)
친의(襯衣)

第三八項 口 日 교으로 첫 소리를 삼는
 一를 가진 字音은 그 母音을 丁로 내는
 것으로 原則을 삼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甲	乙
묵화(墨畫)	묵화
북극(北極)	북극
봉우(朋友)	봉우
품질(品質)	품질

第三九項 「의 희」의 字音은 本音대로 내
 는것을 原則으로 삼는다。

例 의원(醫員)	주의(主義)
희망(希望)	유희(遊戲)

第四〇項 「기 희 식 치」의 字音은 「기
 비 시 치」로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
 을 버린다。)

例 甲	乙
기차(汽車)	기차
일기(日氣)	일기
곤비(困憊)	곤희
시탄(柴炭)	시탄
치중(輜重)	치중

第四一項 「쉬 취」의 字音은 「쉬 취」로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甲	乙
쉬려(淬礪)	쉬려
취재(取才)	취지
例外 수용(睽容)	쉬용

第二節 닿소리만을 變記할것

第四二項 「나 녀 뇨 뉴 니 네」가 單語의
 첫 소리로 될적에는 그 發音을 따라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는다。(甲을 取하
 고 乙을 버린다。)

例 甲	乙
여자(女子)	녀자
영변(寧邊)	녕변
요도(尿道)	뇨도
육혈(衄血)	늑혈

이토(泥土) 너로
 예묘(禰廟) 녀묘
 但 單語의 頭音 以外의 境遇에서는
 本音대로 적는다。

例 남녀(男女)	부녀(婦女)
직뉴(織紐)	

또 漢字의 代表音은 本音으로 한다。

例 계집녀(女)	
----------	--

第四三項 「라 러 료 류 리 레」의 字音이
 頭音으로 올적에는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
 다。)

例 甲	乙
양심(良心)	량심
역사(歷史)	력사
요리(料理)	료리
유수(流水)	류수
이화(李花)	리화
예의(禮儀)	레이

但 單語의 頭音 以外의 境遇에서 날적
 에는 그 發音을 따라 本音대로 적
 는다。

例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재료(材料)	염료(染料)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桃李)	행리(行李)
사례(謝禮)	혼례(婚禮)

또 漢字의 代表音은 本音으로 한다。

例 어질량(良)	
----------	--

第四四項 「라 로 루 르 래 뢰」의 字音이
 頭音으로 올적에는 發音대로 「나 노 누
 느 내 뢰」로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
 을 버린다。)

例 甲	乙
낙원(樂園)	락원
노인(老人)	로인
누각(樓閣)	루각
능묘(陵墓)	릉묘

내일(來日) 래일
 뇌성(雷聲) 쇠성
 但 單語의 頭音 以外의 境遇에서는 本
 音대로 적는다。

- 例 쾌락(快樂) 극락(極樂)
 부로(父老) 연로(年老)
 고루(高樓) 옥루(玉樓)
 구릉(丘陵) 영릉(英陵)
 거래(去來) 왕래(往來)
 지뢰(地雷) 낙뢰(落雷)

또 漢字의 代表音은 本音으로 적는
 다。

例 다락루(樓)

第三節 닿소리와 홀소리를 함께
 變記할것

第四五項 「더도듀더데」의 字音은 「저
 조주지제」로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例 甲 乙
 저급(低級) 더급
 전답(田畓) 던답
 조수(鳥獸) 듀슈
 조정(調停) 도형
 주광(黃獮) 듀광
 지구(地球) 디구
 제자(弟子) 데즈
 질탕(佚蕩) 딜탕

第四六項 「러도류레」의 字音은 「저
 초추체」로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
 을 버린다。)

- 例 甲 乙
 천지(天地) 런디
 철도(鐵道) 덜도
 청중(聽衆) 형중
 초미(貂尾) 도미
 축루(觸樓) 룩루
 체재(體裁) 데제

第四節 俗音

第四七項 現行 字典에 아무 俗音 規定이
 없으되, 俗音 한가지로 읽는 字音은 그
 發音을 따라 俗音대로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例 甲 乙
 취미(趣味) 추미
 인쇄(印刷) 인찰
 부모(父母) 부무

第四八項 두 홀소리(母音) 사이에서 (1)
 ㄴ이 ㄷ로만 나는것은 ㄷ로 적고, (2) ㄷ
 이 ㄴ으로만 나는것은 ㄴ으로 적는다。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例 (1) 甲 乙
 허락(許諾) 허낙
 대로(大怒) 대노
 회령(會寧) 회녕
 (2) 의논(議論) 의론

第四九項 두 홀소리(母音) 사이에서 ㄴ
 이 ㄷ로도 나는 일이 있으되, 그것은
 本音대로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例 甲 乙
 기념(記念) 기렴
 기능(技能) 기릉

第五〇項 漢字音이 連發될적에 ㄴ ㄴ이
 ㄷ ㄷ로도 나는것은 本音을 原則으로
 하고, ㄷ ㄷ도 許容하되, ㄴ ㄴ도 적는
 다。(甲을 原則으로 하고 乙을 許容한
 다。)

- 例 甲 乙
 관념(觀念) 관렴
 곤난(困難) 곤란
 안녕(安寧) 안녕
 본능(本能) 본릉
 만년(萬年) 만련

第五一項 現行 字典에 아무 俗音 規定이
 없으되, 本音과 俗音으로 읽는것은 그
 發音대로 적는다。

- 例 本音 俗音

당분(糖粉) 사탕(砂糖)
 팔월(八月) 파일(八月)
 목근(木槿) 목과(木瓜)

第五章 略語

第五二項 말의 끝 음節의 끝 홀소리(母音)가 줄어들고 닿소리(子音)만 남은것은 그 우의 음節에 바침으로는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본말	甲	乙
	아기야	악아	아가
	기러기야	기럭아	기러가
	애꾸눈이야	애꾸눈아	애꾸누나
	어제저녁	엇저녁	어저녁
	가지고	갓고	갓고
	미치고	밧고	밧고
	디치고	딧고	딧고
	온가지	온갓	온갓

第五三項 로마나 또는 로마 名詞가 함께 들어진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例	본말	준말
	나는	난
	나를	날
	너는	넌
	너를	널
	무엇을	무얼
	무엇은	무언
	그것은	그전
	그것을	그걸

第五四項 語幹의 끝 홀소리(母音)가 「어」소리를 만나서 줄어들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例	본말	준말
	전느어	전너
	크어	커
	기쁘어	기빠
	전느었다	전났다
	크었다	켰다
	기쁘었다	기뻐다

第五五項 홀소리(母音)로 끝난 語幹의 밑에 「이 아 어」가 와서 어우를적에는 준대로 적을수도 있다。

例 (1)	본말	준말
	뜨이다	떡다
	쓰이다	씨다
	보이다	외다
	전느이다	전너다
(2)	가아서	가서
	오아	와
	부어	뷔
	그리어	그려

第五六項 語幹의 끝 음節 「하」의 卜가 줄어들적에는 ㅎ를 中間에 놓기를 原則으로 하고, 또 우의 음節에 바침으로 씬도 許容한다。(甲을 原則으로 하고 乙도 許容하고 丙은 버린다。)

例	본말	甲	乙	丙
	가하다	기ㅎ다	갓다	가타
	부지런하다	부지런ㅎ다	부지렀다	부지런타
	정결하다	정결ㅎ다	정결다	정결타
	다정하다	다정ㅎ다	다정다	다정타

第五七項 다음의 말들은 그 語源의 原形을 밝히지 아니하고 소리대로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甲	乙
	결코	결고
	하마트면	하망드면

第五八項 「시지치」로 끝난 語幹에 「어」가 와서 소리가 줄어 음節이 줄어들적에는 적을 原則으로 하고 乙을 許容한다。

例	본말	甲	乙
	오시어	오셔	오서
	가지어	가져	가쳐
	치어	쳐	치

第五九項 複合名詞 사이에 있는 「의」의 一가 줄어들고 卜가 우나 아래의 홀소리(母音)에 섞여서 날적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例 쇠고기(소의고기) 달걀(타의알)

第六章 外來語 表記

第六〇項 外來語를 表記할 積에는 다음의 條件을 原則으로 한다.

- (一) 새 文字나 符號를 쓰지 아니한다.
- (二) 表音主義를 取한다.

第七章 띄어쓰기

第六一項 單語는 각각 띄어 쓰되, 로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에 붙여 쓴다.

- (一) 名詞와 助詞
 - 例 (1) 사람은. 밥으로만.
 - (2) 약아. 애꾸눈아.
- (二) 用言의 語幹과 語尾
 - 例 (1) 가면서 노래한다. 먹어 보아라.
 - (2) 갖고. 맞고. 했으니.
- (三) 副詞와 助詞
 - 例 띄운. 놀이야. 잘이야.

第六二項 補助의 뜻을 가진 用言은 그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에 붙여 쓴다.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甲	乙
먹어버린다	먹어 버린다
열어보다	열어 보다
잡아보다	잡아 보다
보아오다	보아 오다
전더내다	전더 내다

但 對立의 境遇에는 띄어 쓴다.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甲	乙
잡어 버리다	잡어버리다
열어 보다	열어보다

第六三項 다음과 같은 말들은 그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에 붙여 적는다.

- 例 (1) 갈바들. 할수가 없는줄은 될터이다. 가는이.

- (2) 하는대로. 될성싶은. 될듯한. 하는체.

第六四項 命數辭는 그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에 붙여 쓰기로 한다.

- 例 한채. 두자루. 분. 닷동. 한개. 네사람

第六五項 數를 우리글로 적을 積에는 十進法에 依하여 띄어 쓴다.

- 例 일만 삼천 구백 오십 팔

附錄 一 標準語

一. 무릇 어떠한 品詞를 勿論하고 한가지 뜻을 나타내는 말이 두가지 以上 있을 積에는 特別한 境遇에만 認定한다.

- 例 서 석 세(三)

二. 一定한 語根이나 語幹이 혹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에 붙어 다른 品詞로 變換될 積에는 그 語根이나 語幹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例 나비(幅) 뭇(束)

三. 用言이 活用할 積에는 그 語幹의 끝 音節의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에 붙여 적는다.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1) 甲	乙
나아	나았다
나어	나었다
막아	막았다
막어	막었다
보아	보았다
보어	보었다
돌아	돌았다
돌어	돌었다

(2) 甲	乙
저어	저었다
저아	저았다
주어	주었다
주아	주았다
그어	그었다
그아	그았다
피어	피었다
피어	피었다

게시다	게시다	러(보러 가다)	라
계집	계집	려고	랴고
고루(均)	고로	미땅히	맛당이
고저(欲)	고자	마디	마디
골고루	골고로	마음	마암
곳(處)	곧	(맘)	
꽃(花)	꽃	마저	마자
구름	구름	마주	마조
끝(末)	끗	마춤법(綴字法)	마침법
나누다	노느다	마침(適)	마춤
(논다)		만나다	맛나다
낱(穀)	낫	말(昆)	맛
낯(顏)	낫	매우	매오
낯(個)	낫	머리맡(枕邊)	머리맛
너무	너모	먼저	몬저
(넘어)		먼지	몬지
너희	너이	며느리	며누리
넋	넋	며칠(幾日)	몇일
농치다	노치카	몇(幾)	몇
나음	나암	모두	모다
(담)		몫(配分)	목
낱(錨)	낫	물(陸)	못
덕너	드니	밑(底)	밋
덕라	드라	바늘	바늘
덕라도	드라도	배우다	배호다
덕러	다려	밭(田)	밭
덜(먹덜 밥)	든	빤	빤
덜치다	덜치다	버선	보선
대(處)	대	뻘치다	뻘치다
대머고	다리고	벗(友)	
대치다	뎛치다	베다(枕)	비다
도루	돌오	베다(斬)	버히다
도리어	도토히	베(布)	외
동곳(男簪)	동곧	벼(稻)	베
돛(帆)	돛	뼈(骨)	베
들(猪)	돛	벗(犁)	벌
되우(십히)	되오	벌(陽)	벌
든지	던지	보리(麥)	버리
뜻(志)		비다(空)	뷔다

비로소
 비추다(他動)
 비취다(被動)
 비치다(自動)
 빗(梳)
 빚(債)
 빛(光)
 사되다
 사슴
 싸우다
 샅
 살갓(皮膚)
 살(股間)
 새로
 서다(立)
 섬기다(事)
 세로(縱)
 세우(힘써)
 조금
 소서
 송곳(錐)
 솥(鼎)
 숯(炭)
 술(量)
 심다(植)
 (시므다)
 아래
 아뢰다
 아버지
 아직
 아침
 어디
 어머니
 어찌
 얼굴
 없다
 여덟
 여우
 오늘

비릇오
 빗우다
 빛외다
 빛이다
 빚
 빛
 살외다
 사심
 싸호다
 샷
 살갓
 샷
 새루
 스다
 섬기다
 세루
 세오
 소곰
 쓰서
 송곳
 솥
 솥
 솥
 아래
 알외다
 아버지
 아직
 아침
 어디
 어머니
 으찌
 얼굴
 없다
 여덟
 여호
 오늘

오줌
 오직
 오히려
 외다(誦)
 옷(漆)
 위(上)
 (우)
 읊니다
 (습니다)
 이루
 자루(柄)
 자주
 자취
 저희(저의 複數)
 전혀
 절루
 젓(醃)
 젓(乳)
 종이(紙)
 처음
 (침)
 케
 키(놀이)
 팥(豆)
 하는
 하늘
 하랴(反問)
 하루
 합니다
 홀로
 하매
 하므로(「하다」의
 接續形)
 (하는)대
 행여
 흑여

오줌
 오죽
 오히려
 외이다
 옷
 응
 읊니다
 이토
 자로
 자조
 자취
 저의
 전혀
 절로
 젓
 조희
 처음
 케
 키
 팥
 하난
 하늘
 하로
 합니다
 홀루
 함애
 함으로
 대
 행혀
 흑혀

附錄 二 文章 符號

文章에 쓰는 重要한 符號는 大畧 다음

開城會議의記事

한글標準決定次

斯界權威一堂會合

冬休利用하여開城서十日間

朝鮮語綴字委員總會

최근 수표정(水標町) 시십 이번지에 있는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서 다년간 「한글」연구에 노력을 쌓아오는 사실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바와, 아직까지 한글을 어떠한 표준 아래에서 쓰자 하는 결정이 없음을 우리 문화상에 가장 큰 장애일뿐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표준을 속히 또 완전히 작성하자 함은 그 회의 속망이었다. 그리하여 재작년 십이월 십삼일에 그 회에서는 십삼인의 철자위원(綴字委員)을 선정하여 이래 만이개년 동안을 두고 위원들이 각각 자기의 연구한바를 정리하기도 하고, 새로 연구도 더하기도 하여오던바, 이번 동기휴가를 이용하여, 내이십 육일부터 명년 일월 사일까지 열흘 동안 개성(開城) 고려청년회관(高麗靑年會館)에서 「조선어학회 철자위원회」총회를 열고, 각 부문에 나누어 철자의 표준을 작성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학계의 권위자가 한자리에 모이어서 열흘 동안이나 대회를 연다 함은 실로 조선에서는 처음 보는 일이라 할것시오, 더욱이 조선어학계를 위하여서는 정말 획시거적인 중대한 모임이라 할것이다.

出席者十八人

정성측 위원은 이십 육일 아침 출발 이번 대회에 참가할 위원은 종래의 위원 십삼인과 새로 선정한 오인을 합하여 모두 십팔인인데, 그 성명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의 성명만 보더라도 이 모임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나타내일지 짐작할수

있다. 또 경성에 있는 위원 일행은 이십 육일 오전 구시 경성역 발 열차로 개성에 향하여, 그날부터 대회에 참석할터이라 한다.

出席할委員

崔鉉培 李克魯 鄭烈模 李熙昇 金允經 鄭寅燮 張志暎 申明均 李允宰 朴顯植 權惠奎 李秉岐 金善琪 李鉞 李鐸 李萬珪 李世楨 李常春

(朝鮮日報 第四千一百八十六號, 一九三三年十二月二十四日 記事에서。東亞日報, 中央日報에도 대개 이와 同一하므로 省略한다。)

最後的決定이될

한글綴字法討議

廿七日高麗靑年會館에서

斯界大家十七名會合

【開城】 조선 문화의 기준(基準)인 한글 철자법(綴字法)에 대하여,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 철자법 위원들과 조선어사전편찬회원(朝鮮語辭典編纂會員) 제씨들이 학자간의 의견을 통일하고자 이번 동기방학을 이용하여, 사계(斯界)의 권위(權威) 십 필명을 개성 고려청년회관에 회합(會合)한 후 한글 철자법의 최후 결정적 토의(最後決定的討議)를 한다 함은 이미 보도한바 있거니와, 지난 이십 육일 오전 열시 사십 오분 이병기(李秉岐)씨를 제한 십 육명의 한글 대가(大家)가 도착하여, 예정한 오후 두시부터 개회(開會)하려 하였으나, 당국과 교섭 관계등 문제로 곧 개회하지 못하고, 비로소 이십 칠일 오후 삼시에 이르러 개회(會合)된바, 제 일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한다.

第一日

一. 開會 一. 開會辭 一. 點名 一. 經

過報告 一. 臨時執行委員 選舉 (議長二人) (提案說明委員 三人) (記錄委員二人) 一. 休息 一. 案討議

責任이 重大하다는
意味 깊은 開會辭

教育家와 學究的의 態度로
愼重 討議 初日 光景

【開城】 이일 오후 세시 신명균(申明均)씨가

『이번 회합은 우리들의 철자법의 표준을 통일(統一)하자는 최후적 목숨이요 토의(討議)이니만치, 우리의 책임만은 중대함이 있다. 학구적 견지(學究的見地)로 보아서나, 교육가의 태도로 보아서나, 신중히 해주기를 바란다.』

는 의미 깊은 개회사가 있는 후, 이극로(李克魯)씨의 회원 점명(點名)이 있었고, 따라 경과보고가 있었는데, 『조선어학회 철자 위원회가 일천 구백 삼십년 십 이월 십 삼일에 창립되어, 그 당시 철자 위원회 십 삼명이었으며, 창립 후 만 이개년 간을 이기(二期)로 나누면,

第一期 (一九三一年 夏期까지)

▲集會 數回 三十二回

▲右所要 時間 百一時間

第二期 (一九三一年 夏期로 一九三二年 十二月까지)

▲集會 回數 三十七回

▲右所要 時間 百十時間

前後 二期 合計

▲集會 回數 六十九回

▲所要 時間 二百一十一時間

이라』 하며, 전형위원(詮衡委員) 삼인을 선거하여, 구두호천(口頭呼薦)으로 위원을 선거한 결과

▲議長 申明均 李常春

▲提案說明委員 崔鉉培 李熙昇

李克魯

▲記錄委員 金善琪 李鉞

제씨가 당선되고, 토의 시간은 매일 오전 아홉시부터 오후 한시까지, 오후 세시부터 여섯시까지로 하기로 되었다. 또한 이번 회합에 쓰는 초안 인쇄물(草案印刷物)은 한성도서회사에서 기증(寄贈)을 받았으며, 열흘동안 개성 숙식비는 개성 공전항(孔鎭恒)씨가 담당하기로 되었다 한다. 개성에 이러한 중대하고 의의있는 목숨이 열리게 되는 개성으로써 기쁜 일이며,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한다.

(以上은 朝鮮日報 一九三三年 十二月 三十日 記事에서. 東亞,日報 中央日報에도 대개 同一하므로 省略한다.)

文法, 聲音을 折衝

한글 統一 原案 作定

修正委員이 補充後 發表

綴字統一委員會 閉幕

【개성】 지난 二十七일부터 개성 고려 청년회관(開城 高麗青年會館)에서 개최한 철자 통일 위원회(綴字統一委員會)는 예정대로 지난 四일 오후 五시(十八委員, 十七回, 五十九時間)까지에 九十항목에 달하는 호변한 원안 전부를 가결하고, 조선어학사상(朝鮮語學史上)에 영구한 기념이 될 이 회합은 의원 一동이 기립하여, 「한글 만세」의 삼창으로써 원만히 폐회하였다. 위원 十八인, 회합 十七회, 九일간, 회의 시간 五十九.

그동안의 경과를 들어보면, 난삽한 문법적 기초만 존중하여, 일반의 사용상 불편을 느끼게 하는것도 불가하므로, 말의 본질을 전연히 무시하지 않고, 말하자면, 문법과 성음을 존중하여, 절충식으로 가장 일반 민중의 사용에 편리하고, 또 해득에 용이하도록 가장 완전할 철자법의 통일원

안을 결정하여 놓았다 한다.

그런데 이번에 결정한 원안을 가지고 곧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위원으로 당석에서 선임된

李允宰 崔鉉培 權憲奎 金允經 李克魯 申明均 金壽琪 張志暎 鄭寅燮 李熙昇

등 十씨로 하여금 원안 전부에다가 다시 수정과 보충을 가한 후에, 또 다시 정식으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협의 결정하는 동시에, 그 결의된 원안을 비로소 세상에 발표를 하게 되리라 한다.

그런데 재차 소집될 위원회로 말하면, 가장 신속히 개최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위원 전부가 각 지방에 널려 있는 관계로써 곧 소집되기는 용이하지 않을 듯하고, 다소의 시일을 요하게 되리라 한다.

한글 學者 招待

【개성】 九일간이란 긴 시일을 두고 조선어 철자 통일을 위하여 노력한 한글 학자 一동을 동 위원회가 끝나던 지난 四일 오후 五시부터 시내 고려청년회 이사장 (高靑理事長) 황중현 黃中顯 씨가 대성관 (大成館)으로 초대하고, 성대한 위토회를 개최 하였다 한다.

(東亞日報 第四千三百三十一號 一九三三年一月六日 記事에서。朝鮮日報, 中央日報도 대개 同一하므로 省略한다。)

光輝 있는 聖祖 遺業

眞摯한 學徒의 努力

周時經 先生 以來로 끊임 없는
한글 運動의 展開

『밝은 조선을 배양하자』 이것은 일천 구백 삼십 삼년의 명량(明朗)한 햇별을 맞이하는 머리에서 새 조선을 북돋우고 새 조선을 건설하려고 하는 일군과 대중이 다시 파악하고, 다시 인식하고, 다시 각오

하며, 다시 출발하여야 할 목표이다。 광명(光明)은 동방에서! 이것은 벌써 지시간 조선의 기록한 자취어니와,

지금 조선 은 흐리고 창백하고 킁킁한 조선이다。 이 조선을 다시 『밝은 조선』으로 배양 건설하자면, 먼저 자기가 가진 바 고유한 문자 文字, 를 매만지고 키우고 넓히는 데서 민족의 갱생을 찾을 것이니, 다른 모든 운동과 아울러 최근 우리의 고유한 문자(文字) 「한글」을 통일하고 정리하며, 이것을 다시

검검하게 안 보이고 답답하게 모르는 같은 「겨레」에 깨닫고 알고 보이도록 노력하여 온 「한글」 운동의 과거의 존귀한 공적을 찾고, 앞으로 밝은 길을 새해 초두에서 내어다보자。

「한글」이야말로 우리 조선의 세계적으로 크게 자랑할 들도 없는 보배이니,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사백 팔십 칠년전 이조의 군왕(君王)으로서 많고도

두드러진 공적을 남기신 세종 병인(世宗丙寅) 이십 팔년에 창조하여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발표한 것으로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민족이 가진 문자 또는 문화(文化)는 그 민족의 성쇠를 따라서 소장(消長)하는 것이다。 그 뒤 조선은 너무 어둡고 거칠고 힘없어서, 이 귀중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키울 여지도 없이

다른 민족의 힘과 문화(文化)에 눌려서 원통하게도 「한글」이 그 광휘 있는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고, 묻혀 버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약 이십년전 「한글」 운동의 선구자 주시경(周時經) 선생이 비로소 「한글」의 진가를 찾아내어서, 아직도 과학적으로 체계가 서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을 힘들여 철자(綴字)와 문법(文法)을 연구하여 다소

과학적

기초를 세우고, 조선어 강습소(朝鮮語講習所)를 세워서 보급(普及)을 꾀하였으니, 이에서 한글 운동의 아름다운 새 싹이 돋았다. 그러나 이것조차 일시 쇠퇴하였다가, 기미(己未)년 이후 일천 구백 이십 이년 십 이월에 「한글」의 연구자들이 조선어연구회(朝鮮語研究會)를 조직하여 이 운동이 다시 살어나고 생기가 돋았다. 이

연구회에 서는 월례회를 열어서, 사계의 진집한 학도 삼십여명이 모이며 의견 교환과 강습 「한글」 잡지의 발행등으로 그 보급을 힘써오다가, 일천 구백 삼십 일년 일월에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라 이

름을 고치고, 철자법 통일(綴字法統一),

한자제한(漢字制限), 외래어 통일(外來語統一), 또 조선인으로 하여야 하고 가져야 할 조선어 사전(朝鮮語辭典) 편찬에 착수하여, 지금 손을 맞잡고, 힘을 합하여, 그 완성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민족의 성장 발달이 장구한것만큼, 그 가진 문자도 복잡다단하여,

일조일석에 완성을 볼수 없을망정, 최근 조선어학회에서는 작년 십 이월 이십 육일부터 개성(開城)에서 지금까지 연구토의하던 철자법 통일의 최후의 회합을 열고, 그 기초를 세우게 되었다.

(朝鮮日報 第四千九百九十九號 記事에서)

華溪寺 會議의 記事

「한글 맞춤법」

統一會 終了

또 한번 정리하여 한번에 공포
整理委員 九氏 選定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서는 한글 맞춤법(朝鮮語綴字法)을 제정하기 위하여, 작년十二月에 통일안 의회(統一案議會)를 거쳐, 수정위원十인에게 부탁하여, 이래六개월간에 작성한 안(案)을 가지고,

지난七月二十六日부터 시외 화계사(華溪寺)에서 위원회를 열고, 의장 신명균(申明均)씨 주재하에 토의를 계속하여, 지난三일에 원만히 마치었다는데, 이 통일안을 전체적으로 체계를 정리한 후 곧 한번에 공포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위원 九씨를 선정하였다고 한다.

申明均 李允宰 李熙昇 金善琪 李克魯 崔鉉培 權惠奎 鄭寅燮 金允經

(東亞日報 第四千五百四十一號, 一九三三年八月四日 記事에서。朝鮮日報, 中央日報도 同一하므로 省略함。)

統一案 發表할 때의 記事

한글 기령날 발표될
맞춤법 보급은 어떻게
뜻깊고 값있는 맞춤법 통일안
너나없이 다 알자!

기령날 이십 구일! 사백 팔십 팔년전

에 우리 한글이 발표된 이 날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발전에 새로운 비약이 약속되었던 날이다. 민족의 새로운 발전을 기약하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조선인은 다시금 이 날의 한글 발표를 뜻있게 기령하고자 하는 바이어니와, 이 기령

은 오랫동안을 두고 조선어학회에서 연구 중에 있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발표 되는 날이다。 우리는 이 기념일이 거듭 뜻깊음을 느끼는바이다。 실로 한글은 세계에 자랑할만한 교묘한 조직을 가진 글이었으나, 민족의 문화 체계가 혼란되면서, 그 문자의 쓰임도 또 혼란하여졌던 것은 후대의 손자된 백성의 수척이었다。 이번엔 한글의 맞춤법을 정리하여, 시대에 맞게 쓰이도록 하고자, 조선어학회에서 통일안을 만들었는데 실로 문화적 가치가 크다 할것이다。 훌륭한 공적이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널리 쓰이도록 하지 않는한에는 그 공적은 또한 헛된것이 될것이니, 이제 통일안의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각계 인사의 의견을 들어 널리 보급되기를 도움기로 하자。

(朝鮮日報 一九三三年 十月 二十 八日 記事에서。)

한글날에 發表될

마춤법 統一案 內容

朝鮮語學會의 苦心 決定한것

우리 文化上의 金字塔

조선어학회에서 연구 결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불췌간 세상에 발표되려는것은 이미 보도한바와 같거니와, 발표할 날자는 오는 이십 구일, 즉 「한글 기념일」로 결정되었다。 본사에서 그 원안을 전문대로 특별 부록으로 하여, 이십 구일 신문에 첨부하여, 독자에게 진정하리라는 것은 별항과 같거니와, 이제 그 원안중에서 중요한 대목을 뽑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以下는 略)

(朝鮮日報 一九三三年 九月 二十五日 記事에서。)

한글 統一案대로

本報 綴字도 更新

우리 文化運動의 劃期的 事業
名實 共히 한글 統一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조선어학계의 조예가 깊은 최고 권위자 최현배(崔鉉培)씨등 十八명이 동 위원회를 조직하여가지고, 오랫동안 연구와 협의를 거듭하여오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기보한바와 같이, 그동안 그의 완성을 보아, 한글 발표 四百 四十八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二十九일 한글 기념에 그를 발표하기로 되었다。

이는 어학 통일로 보나, 또는 「문학의 향상」으로 보아, 우리 민족의 획기적 사업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사는 일찍 막대한 희생적 노력으로 본보의 활자를 신철자법에 의한 활자로 개정하고, 이의 발표되기 앞서 전인 지난 四월에 희생과 노력으로 본보의 종래 활자를 신철자법에 의한 신 활자로 개정하고 지난 四월 一일부터 본보에 그를 사용하여왔다。

그러나 二十九일로 발표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종래 본보에서 채용하던 철자법과는 약간의 증보가 없지 아니하므로, 이에 통일상 본보도 二十九일부터 이번 발표된 통일안을 채용하기로 되었다。

(東亞日報 一九三三年 十月 二十日 記事에서。)

【綴字法 統一案 公表와 함께】

한글 頒布日 祝賀會

二十九일은 「한글」이 반포된 기념일이다。 지금으로부터 四百 八十七년 전 세종(世宗) 二十八년 병인(丙寅)년 이날에 우리의 선성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어,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여 일반 여민에게 반포하여 주신 날이다。

이날이야말로 다시 말하면 동방의 조선 민족이 글로써 독립한 가장 빛나는 날이라 하여, 시내에 있는 이에 관계 있는 각 단체는 여러가지로 이날을 기념하였다。

시내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서는 이날에 발표하려고, 그동안 삼년의 세월을 허비하여 작성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공표할겁, 이 글을 축하하기 위하여, 시내 명월관 본점에서 축하회를 열었다는데, 오후 五시 반부터 개최하여, 가장 정중한 가운데서 식을 마쳤다 한다.

각 방면으로부터 모인 六十여명이 열석한 후, 최현배(崔鉉培)씨의 사회로 식이 열리어, 기희승(李熙昇)씨가 훈민정음 서문(訓民正音序文)을 봉독한 후, 이윤재(李允宰)씨의 맞춤법 통일안 제정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언론계, 교육

계, 교회측, 사회측 기타 각 방면을 대표하여,

宋鎮禹, 朱耀翰, 趙東植, 梁柱三,

呂運亨, 趙炳玉, 外 一氏

로부터 축사가 있었, 또 각처로부터 들어온 축전(祝電)을 이극로(李克魯)씨가 낭독한 후, 일반은 식탁에 둘러 앉아, 화기에 애한 가운데서 이날의 옛일과 아울러 앞길을 축복하였고, 밤이 깊어 산회하였다고 한다.

(東亞日報 第四千六百二十九號, 十月三十一日 記事에서 朝鮮日報, 中央日報에도 다 同一하므로 省略하다.)

統一案 發表 以後의 記事

한글 統一 委員

慰勞會 開催

斯界에 功勞 大矣!

지난 二十九일에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서 발표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우리 문학사상에 획기적 큰 사업인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이 큰 사업에 오랫동안 헌신적 노력으로 심혈을 경주한 위원 제씨의 공로는 또한 크다고 아니할수 없다.

이에 사회 각 방면의 유지들은 그 공로를 크다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여, 오는 八일 오후 六시, 부내 명월관 본점(明月館本店)에서 위원 제씨들의 위로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다 한다.

發起人

君芮彬 金麗植 金敬弘 金壽萬 金炳魯 金活蘭 獨孤璇 朴準鎬 朴熙道 方應謨 宋鎮禹 申興雨 魚丕信 安鍾元 亞扁薛羅 梁柱三 呂運亨 尹致昊 俞億兼 柳澄基 李潤柱 李鍾麟 李鎔

珪 李相協 李亮植 趙東植 車相瓚 崔奎東 崔斗善 崔麟 韓龍雲 罕利孚 義 玄相允 (기나다順)

(東亞日報 一九三三年 十一月 五日 記事에서.)

한글 綴字法 制定

委員 慰勞會 盛況

八日 夜明月館 本店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 향하여 우리의 보배 토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을수 있는것은 실로 세계에 그 비류를 찾기 어려운 「한글」을 내놓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민족적 보배가 오래동안 버려워진 상태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던니, 금번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의 희생적 노력에 의하여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조직화한 통일안을 얻게 된것은 우리 손으로 완성된 문화적 사업으로서는 근래에 드문 위훈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는 조직된 조선어를 통하여 국제문화에 무형의 기여를 한 셈이다. 또한 후세 천만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복고려움 없이 남겨줄 크나큰 민족적 유산을 완성해놓은것이다. 이 기념할만한

거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가진 희생을 바치어가며 심혈을 기울이기를 아끼지 아니한 조선어학회의 위원 열네분을 위도하기 위한 축회회는 예정과 같이 八일 오후 여섯시 오십분부터 시내 명월관 본점에서 열리었다. 당야에 참석한 이들은 교육계 종교계 도규계 실로 사회의 각종 각방면을 망라하였으며, 외객으로는 「에비슨」 「아펜셀라」 「쿤쓰」 「할터」 부인 성공회의 「엘·레비·소」 선천(宣川)의 「클라하크」 등 제씨가 특히 참석하여, 백 이십여명의 다사가 일당에 모여서 근래에 없던 성회를 이루었다. 만장의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

속에 죄장 최린(崔麟)씨가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하였다. 본사 전무 주요헌(朱耀翰)씨와 이용설(李容高)박사의 의미 깊은 축사에 대하여, 조선어학회를 대표하여 신명균(申明均)씨의 답사가 있는 후, 조선어학회원인 연전 교수 정인섭(鄭寅燮)씨의 실험성음(實驗聲音)에 대한 짧은 강연이 있고, 식당에 옮겨앉았다. 동아협씨에 화기에애한 속에 감격에 충만한 이 역사적 회합은 끝났다.

(朝鮮日報 第四千四百六十六號, 一九三三年十一月十日 記事에서. 東亞日報 中央日報에도 더 同一히므로 省略한다.)

한글 미춤법 통일안에 대한 各新聞의 社說과 時評

(社說)

綴字法 統一

朝鮮文 發達의 基礎 條件

近代의 우리 글처럼 規則 없는 글은 없다. 一般 사람들은 우리 글이란 본대 規則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리만큼, 그만큼 規則이 없었다. 秩序整然한 좋은 글을 가지고 이렇게 無秩序하게 내버려두는것은 文化進步의 支障이 될은 勿論이어나와, 實로 우리 사람의 큰 羞恥다. 우리 글의 綴字法의 統一 規定은 참으로 重大한 일이오 時急한 일이다. 이번 朝鮮語學會에서 그 歷史的 大事業인 朝鮮語辭典 編纂을 앞에 두고, 綴字法委員會의 最終的인 會合을 昨 二十七日 開城에서 열게 된것은 實로 朝鮮文을 爲하여 劃時期的 會合이라고 할것이다. 會集한이는 現代 朝鮮에서 朝鮮語文 研究를 爲하여 生涯를 바치는 學者를 總網羅하였다. 그리고 이번 會合

이 泛然히 또는 猝然히 되는 會合이 아니라, 委員會가 組織된지 二年, 會合이 六十九回, 會議 時間 總計가 二百十一時間이라 하니, 實로 空前의 大會議라 할것이다. 이만한 鄭重한 研究와 意見 交換이 있었음은 綴字法의 最後的 決定의 權威에 對하여 큰 根據가 될것이다.

二

朝鮮語 綴字法을 分類하면, 世宗朝式 又是 諺解式, 崔世珍式, 周時經式 등으로 할것이요, 거기다가 昭和 五年의 學務局式을 加할것이다. 그 중에서 純表音主義인 世宗朝式은 이미 아니 쓰인지 오래고, 崔世珍 訓蒙字會式이 가장 오래 勢力을 얻어왔으나, 그것은 嚴正하게 말하면 無規律의 綴字法이었다. 그러다가 우리 글의 綴字法에 一新紀元을 준이는 世宗大王 다음가는 朝鮮語文의 恩人 周時經氏였다. 四百年間 亂麻와 같은 우리 글의 綴字法은 周時經氏에 이르러서, 비록 完成은 아니 되었다 하더라도, 그 돌아갈 正軌를

찾은 것이었다。學務局式도 結局은 周時經式 綴字法을 不徹底하게 依據하였음에 不
過한 것이다。

以上の 歴史的 敘述에서 朝鮮語 綴字法의 原則은 벌써 分明히 指示된 것이라고 볼 것이니, 問題는 原則에 있지 아니하고, 多少의 例外라든지 極히 小小한 點에 限하였다 할 것이다。우리는 허투라도 速히 우리 글의 綴字法이 確定되고, 그 法에 依據한 文典과 辭典이 出現하기를 希望할 뿐더러, 促進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三

英語의 綴字法은 詩人 초서의 作品으로 부터 確定되었다 하고, 獨逸語의 그것은 루리의 新約全書 譯에서, 러시아의 것은 고골에서 되었다고 하거니와, 이것은 文學의 作品이 綴字法을 民間에 普及하고 標準 세움을 이룬 것이어니와, 各國이 다 그 國語의 綴字法에 對하여서는 國家的인 機關으로 하여금 가장 慎重하게 이를 가아말게 하여, 綴字하는 法은 一種의 國法과 같이 神聖하게 認定되는 것이다。

그렇지마는 朝鮮語는 處地가 달라, 教育上 國語의 地位에 있지 못하므로, 이것을 保存 發展하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民間의 學者와 機關이 主가 되지 아날지 못할 形勢에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朝鮮語의 綴字法이 確立되려면 우리 中에 斯界에 가장 有力하고 信賴할 權威者의 組織體인 朝鮮語學會의 決定을 一般人, 女士, 出版業者, 教育關係者들이 一致하여 支持, 服從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이다。

綴字法은 그 性質上 어떤 部分에 있어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說明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은 免하지 못할 것이어니와, 저마다 이러한 小異를 固執하면 永遠히 統一될 날은 없을 것이니, 多數決的으로 權威

者에 服從함이 그 要訣일 것이다。

(東亞日報 第四千三百二十三號, 一九三三年十二月十九日 所載)

(社說)

綴字 統一 會議

一

朝鮮語學會에서는 數年前부터 朝鮮語 辭典을 編纂하려고 朝鮮語 辭典編纂會를 組織하고, 爾來 着着 進行中 同學會 委員間에 綴字問題에 있어서 意思가 統一되지 못하여 辭典 編纂을 完成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遺憾으로 하는 同學會에서는 今年內로는 기어이 綴字問題를 解決하여, 明年中에 完全한 辭典을 發行하려고, 同學會 委員 其他 斯界의 權威 十數人이 二十六日로부터 十日間 開城 府內會에서 會합한다는데, 同學會는 辭典 編纂에 對하여 最後의 會合으로 자못 重要한 意味를 띠고 있다。

二

世宗 御製 訓民正音이 비로소 頒布되기는 距今 四百八十七年前世宗 二十五年 癸亥 十二月이었다。우리의 글월을 멀리 檀朝에까지 溯考하는 者도 있으나, 可考할 길이 없고, 扶餘, 三國, 南北朝의 各時代에도 獨特한 文字의 製作을 찾아볼 곳이 없다。萬一 正音 以前에 우리의 손으로 만든 國字가 있다고 할진대, 이는 羅末 薛聰의 創製한 吏讀 文字 밖에 들을 것이 없다。그러나 이것은 漢字도 國音을 表記함에 지나지 못하므로, 純粹한 國字로는 볼수 없는 것이다。半島 肇判 四千載에 우리 民族으로서 使用하던 固有한 文字를 찾아 볼수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으나, 正音이 發布됨에 이르러서는 그 奧妙함이 世界에 으뜸이 되는 至寶의

文字를 가지게 되었다。正音 創製에 當하여 經綸과 研鑽이 얼마나 周到綿密하였다는 것은 여러 記錄에서 보는바이나, 當時 一流 學者가 精力을 集注하여 世界의 文字와 音韻을 涉獵하지 아니함이 없었다。여기에 正音은 音韻과 形體에 가장 合理的으로 또는 가장 理解하기 쉬운 文字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이는 朝鮮 文化上 破天荒의 新紀元이라 할 것이다。

三

이러한 正音은 우리 民族 全體에 對한 智識의 解放을 意味한 것으로, 大衆의 文化는 이로부터 建設되어야만 할 것이었다。그러나 이러한 貴重하고 微妙한 글월은 저 難澁한 漢文을 崇尚하던 弊端으로 말미암아 自由롭게 發展되지 못하였다。아니, 도리어 諺文이라는 卑俗한 待遇를 받게 되었으니, 이것은 저 支配階級의 智識 獨占慾에서 나온 漢文의 固執에 基因한 것이었다。저 漢文이란 것은 漢民族 自身으로도 理解하기 어려워, 大衆 文化에 큰 支障이 있으므로, 近年에는 白話運動 또는 文字改良運動이 일어나는 터이니, 하물며 朝鮮 民族으로서야 이로 말미암아 害毒된 것이 얼마나 컸을 것이냐。한글 運動이 近年에 熾盛하여졌다。이는 참으로 반가운 現象이나, 그러나 아직도 그 使用의 統一을 期하지 못한 것은 이보다 더 큰 遺憾이 없다。이번 한글 綴字 統一 會議는 正히 時宜를 얻은 것으로, 우리의 期待를 크게 하는 것이다。그러나 한갓 여기에 바라는바는 綴字를 爲한 綴字, 다시 말하면 形式을 爲하여 語感을 忘却하는 弊端을 避하는데 있으니, 이는 大方家 諸位로서 미리 注意하는바 있겠지만, 近年 한글 研究의 傾向이 綴字問題에 많이 기울어져 있음은 多少 不足한 感이 없지 못하다。于先 이 機會에 綴字 統一 問題라도 圓滿

히 落着되기를 거듭 바리는바다。

(中央日報 第一千七百十三號, 一九三三年十二月二十八日 所載。)

(時評)

綴字問題

한글 綴字法에 關하여 朝鮮語學會에서 是 委員을 選定하여, 開城에서 一週間 大會議을 開催한다고 하니, 매우 意義 있는 일이다。三百年 동안 昏에 파묻히었던 「한글」을 再發見한 것은 朝鮮 民族 文化 發展上으로 보아 크게 慶賀할만한 일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마는, 發見된 重寶를 磨礪하여, 그 眞正한 光輝를 發揮하게 하는 데는 다시 一層의 努力이 있어야 할 것은 勿論이다。今日의 한글 綴字法이 通俗으로 쓰이는 데는 全히 準據할 法則이 없이 混亂의 狀態요, 學理的으로 研究 發表한 中에도 大同은 있으나 小異가 또한 많아, 一種의 鐵則的 規律을 要하는 一般 使用에는 適當하지 않은 바가 있다。前者 學務當局에서 새로운 字法을 撰定하여, 教科用으로도 採用하였지만, 一조차 不完全한 點이 太多하여 再改正을 不可避라 함이 吾人의 觀測이다。語學會로서는 今番에 字法上 疑問되는 點, 各其 異說이 있는 點等을 全部 提議하여, 解決方策을 講求하기로 되었다 하니, 비로소 綴字法에 一貫한 系統이 確立될 줄로 생각된다。定說이 採用된 뒤에라도 그 實用을 促進함에는 또한 一段의 努力이 必要할지나, 우선 「스타일북」을 完成하는 것만도 큰 事業이다。

(朝鮮日報 第四千八百十九號, 一九三三年十二月二十七日 所載。)

〔社 說〕

한글 「愛用運動」을 提唱 함

綴字 統一案 完成을 보고

朝鮮語學會가 主權한 한글 綴字法 統一委員會가 開城에서 一週間동안 열리어, 統一案의 起草를 完了하였다 한다. 우리는 그들 委員의 自發的 獻身 努力에 對하여 感謝의 뜻을 表하는 同時에, 今日에 마침내 依據할만한 具體的 統一案이 樹立된것을 祝하는者다. 한글 綴字法이 在來에 學者들의 研究에 依하여 原則的으로는 그 規律이 宣明되었으나, 元來 綴字法이라는것은 原則 以外에 幾多의 例外가 存在하는것으로, 學者들 사이에도 小異가 頗多하였던것이 事實이다. 더구나 같은 朝鮮語學會 內에 있어서도 標準의 相異와 表音, 表意의 注重點의 差異等으로 여러 갈래로 쓰이는 글자가 많았음을 否認 못 할 事實이 있으니, 이제 이 小異를 버리고 大同에 就하여 具體的 原案이 成立된 것이니, 一般 한글 使用者로서는 비로소 依據할 原本이 생긴것이며, 混沌하던 綴字法의 統一이 進一步된것으로 實로 多幸하다 할것이다. 勿論 今後에라도 이 原案이 實際 使用에 있어서 다시 改良의 必要를 느낄 대가 올지 모르리라 하는것은 豫想할수 있는 일이나, 이것은 不得已한 일로서 文字 發達上 當然히 있을것이다.

二

우리 民族의 至寶라고 할만한 이 한글을 둘러싸고 두가지의 運動이 展開되고 있으니, 前記의 한글 綴字 改革 統一의

運動이 있고, 또는 한글 普及의 運動이 있다. 前者가 한글의 形體와 運用의 法則을 明瞭히 히므로써, 그 學得과 使用에 最大限의 便益을 구하는 點에서 社會的 意義를 發見하는데 對하여, 後者는 朝鮮의 文盲을 退治함에 있어서 이같이 學得에 便宜한 한글을 普及하므로써 文化的 向上을 最急度로 促進하는것으로, 크게 有意義한 일이다. 이 두가지 運動이 近年에 매우 氣勢 있게 나아가는것을 우리는 喜悅하는바 이어나와, 이제 여기 대하여 다시 우리는 한글의 「愛用運動」을 提唱하고자 하는者다. 그 意義는 一面으로는 改正 統一된 綴字法을 實用化하자는것으로도 解釋할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욱 重要한 意義는 朝鮮人의 至寶인 이 「가나다」를 一層 더 活用하여 不便莫大한 漢字의 使用을 最短期間內에 廢除하자는 뜻이다.

三

한글 「愛用運動」의 提唱은 決코 單純한 懷古主義的 또는 X粹主義的 立場에서 말하는것이 아니다. 우리는 『가장 實際主義的 立場에서 한글 專用, 漢文 撤廢를 立唱하는者다. 한글과 漢文을 比較할 때에 民族의 壽命의 代를 繼하여 그 얼마나한 時間과 精力이 이 絶對 不必要한 漢字의 學習과 使用으로 消耗되는가를 생각하거나, 또는 現代 文化의 가장 重要한 部門인 印刷術에 있어서 漢字의 混用 때문에 生하는 努力과 時間의 浪費며, 文字 文化의 發達 支障을 論한다면 漢字 撤廢는 全民族의 急務인것을 깨달을것이다. 漢字 撤廢에 對한 緩急 能否에 對하여 그 論議가 많으나, 여기는 詳述하기를 避하고, 오직 「한글運動」의 一部門으로서 이 한글 「愛用」의 運動이 앞으로 있기를 提唱한다. 이것을 爲하여 他 社會의 로마字會等의 例에 依하여, 一種의 한글 專用의 結

社 같은 것이 있어도 좋음직한 일이다。

(朝鮮日報 第四千二百號, 一九三三年 一月 七日 所載。)

(社 說)

한글 統一案의 完成을 듣고

한글 綴字法 統一問題는 朝鮮 新文化 建設에 가장 큰 問題로서, 일즉부터 斯界의 先輩는 그 最適最宜한 方法 發見에 心血을 傾注하여 있다。그러나 理論과 實際에 矛盾됨이 크고, 原則과 便法에 模糊한 點이 많아서, 各人은 各自의 任意的 綴字法을 說示하였을뿐, 그것이 綜合歸一되지 못하였던 故에 大衆은 그 어느것을 追隨할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新說이 나오면 나올수록 綴字 方法은 덕욱덕욱 深刻한 混亂狀態에 빠지고 迷았던 것이다。그러므로 우리는 韓字學者의 總結束으로 하로바비 그 統一案의 出來를 苦待하였던 者이니, 韓字 研究의 中心機關인 朝鮮語學會가 다음 韓字紀念日 날 그 統一案을 發表한다는 消息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 아니면 아니다。

二

듣건대, 朝鮮語學會는 그간 二百餘回의 會合으로 五百餘 時間을 費하여, 韓字 綴字 統一의 大業을 完成하게 되었다는 바이니, 同會의 奉仕的 熱意에 敬意를 表하지 않을수 없고, 그 얻은바 成果가 民族文化 向上에 絶對의 槓杆이 될것이며, 우리는 衷心으로 그 貢獻을 感謝하지 않을수 없다。이제 그 完成되었다는 統一案은 그 어떠한것일는지 모르지만, 諸 韓字 權

威의 綜合된 意見으로서 多年 理論과 實際에 琢磨를 거듭하여 나온것인것만큼, 크게 어그러짐이 없을것을 믿고져 하는바 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支持하려고 하는 者이거니와, 或 多少의 異議를 插入할수 있는 境遇가 있다 할지라도, 大同에 和하여, 綴字의 實際的 統一을 促成하는것이 今日의 우리의 責務가 아닐가 하는바이니, 同會의 劃期的 發表엔 誠意와 感謝로서 맞이하기로 할뿐이다。

(東亞日報 第四千六百二十號, 一九三三年 十月 二十二日 所載。)

(社 說)

한글 날

一

오늘은 지방부터 사백 팔십 칠년 전에 세종께서 한글을 반포하시던 날이다。한글은 동양의 단 하나인 단음식의 진보된 문자로 조선인의 자랑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한글날을 기념함은 한갓 그것을 자랑하려는 동기에서 나온것이 아니요, 아무쪼록 이 기회를 타서 한글의 효용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어, 한사람이라도 이 글을 쓰는이가 더 생기게 된다면, 그만큼 조선 문화의 진보에 대하여 유조하게 됨으로써다。

배우기 쉽고 쓰기 좋은 한글은 신시대에 가장 적응한 대중의 문자로, 이로부터 조선인이 신문화를 개척함에 있어서 이 글이 막대한 이기가 될것이다。

二

대저 한 민족의 독특한 문화는 먼저 그 문학상에 나타나고, 문학의 특징은 반듯이 그 민족의 생활을 그려내는 그네의 가진 독특한 글자를 요하게 되나니, 이런

이미하에서 한글날을 재음미할 때, 조선 문학이 이날부터 비로소 독특한 신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조선 문화가 이날부터 비로소 독특한 자립성을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이니, 오백년 문화사에 가장 취칭할 로마를 구한다면, 조선 문화에 눈 뜨던 세종시대가 될 것이며, 그중에 있어서도 가장 의미 깊고 빛나는 날은 조선 문화를 특색도 치는 동시에 민중을 문화적으로 해방하여 놓은 이 한글날이다。

三

그러나 조선인의 노력은 과거에 있어서, 얼마나 부족하였는지 이 좋은 글을 가지고도 잘 활용하여, 일대 문학을 건설 하진커녕, 그 글자체의 용법까지 홀어러 처, 지금와서 학자 사이에 문자 정리와 및 그 통일을 부르짖게끔 되었으니, 한글으로 생각하면 크게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중국 같은대서 요새에 겨우 새 글자를 만들어 쓰는것을 보면, 우리는 오늘날부터 이 한글을 사랑하여 그것을 활용하기에 노력만 하게 된다면, 아직도 꼭 만시지한이 있는것은 아니다。

四

다만 이제로부터 한글의 문제는 그의 정리 및 통일과 함께 정확한 조선어 사전이 하루바삐 나와야만 하겠고, 그 다음에 한글을 보급할에는 무엇보다도 일반인에게 애독될만한 한글로 쓴 소설의 명편 걸작이 많이 나와야만 하겠다。

이렇게 하려면, 어학과 문학의 전체가 자꾸 산출함을 요하기니와, 또한 우리네 제각기 한글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그것을 한층 더 애용 활용하는 꾸준한 계속적 노력이 있음을 요하니, 아무리 천재가 나더라도, 일반 민중의 노력이 동무하지 아니하면 전전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법

이다。

五

한글날을 당할 때마다 세종대왕의 그 거룩하신 뜻을 밋들어 한글 보급에 필요한 몇가지 신조를 들어 일반 사람으로 더 부러 한가지로 노력할것을 고조하노니,

첫재는 한문을 폐지하고 한글을 전용할 것

둘재는 전 민족적으로 한글을 배우게 하여 한사람의 문맹이라도 없게 할 것

셋재는 한글을 더욱 더욱 연구하여, 오늘날보담도 일층 더 완전한 문자를 만들 것

넷재는 로마자보담도 우수한 문자임을 전 세계 사람에게 널리 알리일 것 등이다。

(朝鮮日報 第四千四百五十四號, 十月二十九日 所載)

八 面 鋒



한글날! 반가운 날! 거룩한 날, 이날, 「한글」에 모인 「한결」같은 「한담」을 「한울」이라 하도록, 「한길」로 뻗히자!



「한배님」의 자손이요, 한천생의 형제일세. 「한글씨」 「한말씨」 「한맷씨」라면, 여복이나 기쁘랴。

(朝鮮日報 十月二十九日)

橫 說 堅 說

한글이 一體로 統一。말과 맘도 글과 한가지. 이것의 統一이 실상은 究其本源之道。

(東亞日報 十月二十九日)

訓民正音 發布에 對하여

第 四 百 八 十 七 週 年

十 月 二 十 九 日 午 後 七 時

라 디 오 記 念 放 送

金 允 經

一. 緒 論

오늘은 訓民正音—곧 이제 쓰는 우리 朝鮮 글을 發布한지 四 百 八 十 七 週 年 되는 紀念日이옵니다。訓民正音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李朝 第 四 代 世宗大王이 만드신것이옵니다。世宗은 歷代 帝王中에 드물게 보이는 傑出의 聖君이어서, 內治 外交에 赫赫한 功蹟을 끼친것이 많읍니다。그러하여 李朝 第一 極盛時代를 나라 내게 된것입니다。訓民正音의 制定 發布는 그의 偉大한 여러가지 功蹟中에서도 가장 價値 있는 보배로운것입니다。東西學者들의 極口稱揚하는바와 같이, 朝鮮民族이 產出한 知的 產物 中에 가장 價値 있는 것입니다。이와 같은것을 制定 發布하여 주신 오늘을 當하여, 또 한번 感謝하지 아니할수 없읍니다。

訓民正音은 世宗 二十 五年 癸亥 十二 月에 制定된것입니다。그러하나 곧 發布하지 아니하고, 三年間 有名한 學者들에게 맡기어 더 討議하게 하고 使用하여 보게하다가, 解釋을 물리어 全國에 實行하도록 發布한것입니다。이것이 世宗 二十 八年 丙寅 九 月이였습니다。西歷 紀元으로 一 千 四 百 四 十 六 年, 곧 距今 四 百 八 十 七 年 前입니다。

二. 制定의 理由

그러면 當時에는 이미 傳하여오는 古代

文字가 있고, 吏讀文이 있고, 口訣文이 있고, 漢文이 있었는데, 왜 새로 訓民正音을 制定하게 되었는가를 살펴어보건대, 대강 네가지의 까닭이 보옵니다。

첫째는 民意暢達입니다。訓民正音 發布序文에 보면, 『나라의 말이 中國과 다름으로 따라서 文字가 通用되지 못하매, 어리석은 백성은 말하고자 하는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表示하지 못하는 者가 많은 故로 나는 이것을 민망히 여기어 새로 스물 여덟字를 만들어, 누구든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하노라』 하였습니다。即 백성의 의사가 充分히 表示되지 못하는 까닭이 文字—世界的 難文字의 하나인 漢文 때문임을 看破하고, 平易한 日用文字를 만들어 주려함입니다。

둘째는 國家 體面 維持의 必要라 보옵니다。東國 文獻備考에 보면, 『上이 이르시되, 모든 나라는 다 各各 文字를 만들어 그 나라 方言을 적으되, 오직 우리나라에만 없다 하시고, 드디어 스물 여덟 글자를 만들었다』 함을 보아, 國家 體面을 爲하여 만들음이 分明합니다。

셋째는 文化 促進을 爲함이 그 理由라 하겠읍니다。世宗實錄에 실린 鄭麟趾의 序文에 보면, 『한갓 方言이 다른 때문에 學問을 研究하는 者는 그 意味를 깨닫기 어렵더니……우리 殿下께서 正音 二十 八字를 制定함으로 밀미암아, 이것으로 學理를 解釋하면 그 뜻을 잘 알게 되었다。』

하셨습니다。即 學問이 普及되지 못하는 것은 文字가 어렵기 때문이라 본것입니다。또한 世宗 自身으로 말하면, 物質上, 時間上 不足함이 없이 쓸수 있는 王子로 되, 漢文의 極難함을 無限히 體驗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漢文으로는 到底히 社會 全般에게 文化를 向上시킬수 없다고 覺悟한 까닭입니다。

넷째는 冤獄이 없게 하고자 함이라 보겠습니다。우에서 말한 鄭麟趾 序文 中에 『이 글로 訟事를 듣는다면 可히 그 實情을 알게 된다』 함이 있습니다。政治가 밝지 못하던 當時 以前으로 말하면 權閥의 跋扈로 平民의 抑鬱한 事情이 얼마나 그 밑에 蹂躪되었는지 모릅니다。그러하나 그 같이 極難한 漢文으로는 有足한 兩班 階級 外에는 到底히 저마다 意思 表示가 自由롭도록 배울수가 없었습니다。그러하여 아무리 抑鬱한 일을 當할지라도 呼訴할 方法이 없던 것이었습니다。그러하여 聖君 世宗은 백성을 사랑함이 極한 남아 지에 이 같은 설고도 應用이 自由自在로운 訓民正音을 製定하게 된것입니다。

三. 製定の苦心

訓民正音의 製定에 對한 仔細한 記錄이 傳하지 아니하며, 그 眞狀을 엿보기 어렵게 된 큰 遺憾이라 하겠습니다。文獻에 흠어져 短片的으로 傳하는것만으로도 그 製定에 當하여 얼마나 苦心되었는가가 엿보입니다。

첫째는 病魔에 고생을 當하시는 中에라도, 正音 研究의 原稿는 손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던것입니다。崔萬理들의 訓民正音 反對 上疏 中에 『淸州 椒水의 거동에도 特히 凶年임을 念慮하사, 扈從과 모든 儀式을 極히 簡約히 하게 하시며, 모든 政事公務까지도 政府에 統히 委任하시면서, 諺文 같은것은 國家의 緩急에 關係

되는 不可不 하여야 될 일이 아님에도 不拘하고, 行在所에서까지 汲汲히 하시니라고 聖軀를 調變하시기에 煩거롭게 하심은 무슨 까닭입니까……』 함을 보아, 當時 眼疾로 고생되어 政事도 못할 지경이어서 全部 政府에 委任하시고 鐵原으로, 淸州 椒井 藥水로 治療하시려 멩기시지 아니할수 없이 되었지만, 그 때라도 東宮(文宗)을 데리시고 研究 原稿를 가지고 멩기신것입니다。그 얼마나 苦心하고 熱心이었는가 알겠습니다。

둘째는 崔萬理 以下 여러 頑固하고 孤陋한 漢文 中毒者들의 頑強한 反對에 逢着하여도 굽히지 아니하고 製定한것입니다。이미 말씀 드린대로, 訓民正音은 世宗 二十五年 癸亥 十二月에 製定은 끝난것입니다。그러하나 아직 發布하기 前인 世宗 二十六年 甲子 二月 二十日에 集賢殿 副提學 崔萬理 以下 여러 學士들의 訓民正音을 反對하는 上疏가 提出되었었습니다。여섯가지의 理由를 들어 聖德을 侮辱할만한 文句로 激烈한 反對運動을 일으키었던것입니다。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그 上疏文이 너무도 精神病者의 狂言 같고, 잡고대 같고, 젓대나는 어린애 말 같다 할지라도, 當時 事情으로 본다면 重大한 難關이 되는 輿論이었다고 아니할수 없습니다。만일 世宗大王이 意志 薄弱한 普通의 人物 같은이었다 하면, 그때 다 拋棄하여버리고 斷念하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 훌륭한 訓民正音을 가지지 못하고, 저 極難한 漢文에 呻吟하게 되었을는지 모를 일입니다。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아실아실하게 느끼지 아니할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各國의 音韻 調査와 比較研究의 困難을 겪음이 보입니다。成三問 같은 이는 音韻을 調査하여 對照하기 爲하여 遼東에 있는 黃瓚에게 열 세번이나 往復

六百頁), 李鍾極氏 著 모던外來語辭典(約五百頁) 같은 巨著가 다 統一案에 依한 마춤법을 使用하며, 崔鉉培氏 著 中等조선 말본(來月中 發行)은 물론 統一案을 基礎로 한것이며, 李允宰氏의 文藝讀本도 방금 마춤법대로 改正中에 있다.

◇文筆에 從事하는 文人 諸氏로 된 九人會에서는 지금으로부터는 作品을 될수 있는대로 統一案의 마춤법대로 쓰기로 決定되었다.

◇延專을 비롯하여 中央, 培材等 京鄕各 高普學校에서는 統一案을 朝鮮語科의 補充教材로 使用한다.

◇統一案 發表後 二個月間에 한글 講習會가 벌써 여러번 열리었다. 十一月에는 基督教青年會館에서 一週日間, 講師 李熙昇, 李允宰 兩氏, 講習員 九十五人이요, 耶蘇敎書會 벨딩에서 五日間, 講師 李允宰氏, 講習員 二十人이요, 十二月에 天道敎會에서 五日間, 講師 金善琪氏, 講習員 五十人이요, 今年 一月에 東亞日報社 홀에서 一週間, 講師 崔鉉培, 金允經, 金善琪 三氏, 講習員 一百 八人이였다. 모두 統一案으로써 教材를 삼았다.

◇月刊 아이생활에는 新年號에 한글마춤법 통일안 전체를 아이들이 보기 쉬운 말로 해석하여 특집으로 發行하였다.

◇京城 各 印刷所에서는 巨額을들여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 의지한 活字 全部의 一式을 鑄造하여, 一般 印刷의 便利를 도모하였다.

◇李允宰氏는 朝鮮日報에 한글 統一案

마춤법 解説을 三十三回에 亘하여 썼다. 未完한대로 아직 中止하고 있다.

◇李熙昇氏는 黨聲(天道敎青年黨 雜誌)에 한글 講義를 執筆하기로 되었다.

◇新刊紹介◇

常識叢書 第16輯

朝鮮語文法 全

定價 二十錢 送料 二錢

이 冊은 白淵 金科奉氏의 文法을 根據로 하여 누구든지 다 解得할수 있도록 平易 簡明하게 叙述한것이다.

常識叢書 第17輯

朝鮮語綴字法 全

定價 二十錢 送料 二錢

이 冊은 綴字法이란 무엇인가로 비롯하여, 朝鮮語學會에서 發表한 綴字法 統一案과 現行 敎科書의 改正 綴字法案을 한데 모아놓은것이니, 綴字法 研究에는 不可缺할 好資料가 될것이다.

大衆叢書 第五輯

大衆新辭典

定價 三十錢 送料 四錢

社會科學에서 알아들만한 語彙는 가나다順으로 모아서 平易 또는 昭詳하게 註譯을 단것이다. 우리말로 된 社會科學辭典은 이것이 嚆矢이요, 白眉일것이다. 여러분! 急速히 函件씩 備置하시오.

發賣所 京城府安國洞一五三 振替京城一二七八 中央印書館

本會記事

一. 朝鮮語綴字法委員會

(華溪寺會議)

1933년 7월 26일(水) 午後 한시부터 華溪寺 泰和園에서 綴字法 統一委員會를 열었다。(事情에 依하여 후루 늦게 열었다。) 李克魯, 朴顯植, 兩氏는 病으로 出席하지 못하게 되었고, 張志嘆氏는 兒患으로 參席하지 못하였다。그러하여 今番 會議에서는 十八委員中 三人이 缺席하게 되었다。

幹事長 崔鉉培氏로부터 開會 宣言이 있는 뒤에 議事 進行하기 위하여, 議長 二人과 書記를 뽑을새, 議長은 崔鉉培, 申明均 兩氏가 被選되고, 書記에는 金善琪氏가 被選되었다。申明均氏가 議長으로 昇席한 후, 崔鉉培氏로부터 開城會議 以來 九人의 修正委員의 修正案의 要領과 그 經過를 報告하니, 金允經氏로부터 修正案에 對하여 두어가지의 質問이 있었다。討議 方法을 議論할새, 遂條 討議하기로 하도。또 每日 午前 午後로 나누어, 午前에는 아홉시부터 兩시까지, 午後에는 두시부터 여섯시까지 하기로 하여 會議를 進行하여, 前

後 十八回, 五十四時 동안에 討議를 마치고, 다시 이것을 整理할 必要가 있으므로, 整理委員 九氏를 뽑으니, 權憲奎, 崔鉉培, 申明均, 李熙昇, 鄭寅燮, 金善琪, 李克魯, 金允經, 李允宰였다。但 整理委員會는 委員의 三分之二 以上 이라야 열수 있다는 것과 今番 會議 決定에 矛盾이 있을 때에는 全委員이 그 矛盾을 指摘하여 全委員이 紙上으로 討議 決定하기로 하고 閉會하니, 때는 一九三三年 八月 三日 午後 二時였다。

二. 整理委員會

(1) 1933년 8월 23일 水標町 42번지에서 整理委員會를 열었다。鄭寅燮, 崔鉉培 兩氏의 意見에 依하여 整理案은 體系를 세우기로 하고, 矛盾 指摘은 30일까지 整理案을 謄寫하여 全委員에게 發送하고, 9월 5일까지 全委員에게 矛盾 指摘하도록 하기로 하였다。(午後 7시부터 10시까지)。

(2) 1933년 9월 9일 本會館에서 全委員으로부터 온 矛盾 指摘의 回答을 일일이 審議하기로 하였다。(午後 3시로 7시까지)。

(3) 1933년 9월 16일, 同德學校에서 會議하다。(午後 6시로 10시 20분까지)。

(4) 1933년 9월 18일, 李克魯氏 宅에서 會議하다。(午後 7시부터 10시 40분까지)。

(5) 1933년 9월 23일, 本會館에서 會議하다。(午後 7시부터 11시까지)。

(6) 1933년 10월 2일, 本會館에서 會議를 열다。(午後 2시부터 7시까지)。

(7) 1933년 10월 5일, 崔鉉培氏 宅에서 開會하다。(午後 5시부터 10시 40분까지)。

(8) 1933년 10월 6일, 金善琪氏 宅에서 모이다。(午後 7시부터 11시까지)。

(9) 1933년 10월 17일, 本會館에서 整理委員으로서의 最後 會議를 열다。(午後 7시에서 10, 30분까지)。(以上 共計 九回 三十七時間 十分)。

三. 整理小委員會

整理委員會에서는 다시 小委員을 내어 整理하게 하니, 委員은 金允經, 崔鉉培, 金善琪 三氏요, 小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모였다。

(1) 1933년 10월 7일 (土) 金允經氏 宅에서 모였다。(午後 7시로 11, 30시까지)。

(2) 1933년 10월 8일 (日) 黃鶴亭에서 모였다。(午後 3시부터 5시까지)。

(3) 1933년 10월 10일 (火) 崔鉉培氏 宅에서 모

였다。(午後 7부터 12시까지。)

(4) 1933년 10월 11일 (水) 金善琪氏 宅에서 모였다。(午後)7,3부터 10,30시까지。)

以上 共計 四回 十四時間半)

四. 臨時總會

1933년 10월 19일 午後 7시에 本會館에서 臨時總會를 열고, 整理委員의 整理案을 孟柱天氏의 動議와 張志暎氏의 再請으로 하였다. 但 案에 矛盾이 發見될적에는 隨時 訂正한다는 條件을 添附하였다. 그리하여 이 案을 한글날 發表하기로 하고, 한글날은 會場은 明月館으로 하고, 그날 訓民正音 序文 朗讀에 李熙昇氏, 統一案 作成의 經過報告에 李允宰氏로 定한후에 散會하다.

五. 한글날

1933년 10월 29일, 午後 5시에 明月館 本店에서 한글날은 다음과 같이 지키었다.

- 一. 開會辭 崔鉉培氏。 二. 訓民正音 序文 朗讀 李熙昇氏。 三. 統一案 作成 經過報告 李允宰氏。 四. 來賓祝辭 宋鎮禹, 朱耀翰, 趙東植, 趙炳玉, 呂運亨 諸氏。 五. 祝電, 朗讀 李克魯氏(金泉 鄭烈模氏, 大邱 朱在用氏)。 六. 食事 閉會。

六. 月例會

1933년 11월 11일 午後 3시부터 本會館에서 月例會를 열고, 鄭寅燮氏의 「朝鮮語音과 實驗聲音學」이란 題目으로 講演이 있었다.

1933년 12월 9일 午後 4시에 金炯基氏를 請하여 「朝鮮語 速記術」에 對한 講

演이 있었다.

七. 新入會員

1933년 12월 9일 월례회에서 尹龜燮, 金炳濟, 朴學圭 三氏가 入會되었다.

本會員 李秉岐氏는 昨年十一月 四日에 內艱喪을 당하시었습니다.

本會員 李熙昇氏는 昨年十二月 二十一日에 外艱喪을 당하시었습니다. 삼가 弔意를 표하나이다.

조선어학회 사됨

남은말씀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회에서 벌써 여러 해를 두고 걱정하여오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가 창립한 뒤로 처음 있는 성적일 것입니다. 새해에도 이만한 성적이 또 있기를 위하여 빌고 바랍니다.

◆본지를 지난 8월에 내고, 거의 반년이 되도록 쉬었으니, 이제는 독자 여러분께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다만 그사이 여러가지의 사정으로 자꾸 밀우어온것이 지금까지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될수있는데로 다달이 꼭 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전보다 더욱 많이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호는 우리 회에서 발표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관한것만 재료를 모아 특집을 내는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글 맞춤법에 대하여 막대한 문

헌(文獻)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에는 한글의 맞춤법이 통일되지 못하였으므로, 한글 편집의 전 책임을 진 이운재(李允宰)가 한글 교정을 맡게 되어, 다만 이 책만으로 글쓰는것의 통일을 도모하여 왔으나, 이제는 통일안이 발표되었은즉, 본지도 지금부터는 이 통일안의 맞춤법에 의지하여 쓰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한글의 글씨는 전의것과 다소간 다를것도 있을것입니다.

◆본지는 이번 호(제 十호)까지를 마감으로 하여 따루 제쳐놓고, 다음 호(제 十一호)부터는 새로 시작하나 다름이 없이, 말하자면 한 새 기원(紀元)을 삼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서 책의 체제 體裁)와 내용(內容)에 있어서도 다소 다를것이 있을것입니다.

昭和 九年 一月 廿三日 印刷
昭和 九年 一月 廿五日 發行
「한글」 第十號

定價 { 一部 十五錢
六個月 八十錢
一箇年 一圓六十錢

京城府 水標町 四二
朝鮮語學會 代表

編輯兼 發行人 申 明 均

京城府 安國洞 一五三

印刷者 崔 學 俊

京城府 安國洞 一五三

印刷所 中央印刷所

京城府 安國洞 一五三

發行所 中央印書館

電話(光) 二五九五番
振替 京城 一七一七八

第一號부터 第九號까지의 總目錄 一覽

昭和七年五月一日
(第三種郵便物認可)
(每月一回一日發行)

第一號

한글을 처음 내면서.....李 允 宰
조선말본의 기억니은崔 鉉 培
綴字法 統一問題를
앞에 놓고.....李 常 春
우리글씨는 한글으로
맞후자.....李 萬 珪
朝鮮語 辭典 編纂에
대하여.....李 克 魯
한글 글씨에 대하여.....金 克 培
피히테의 言語觀 (上).....金 善 琪
만일 新聞 記事들
내가 쓰려면.....李 鉉 鉉
傳言 吐와 日文
直譯的 誤謬.....李 浩 盛
조선말의 새말.....한글쟁이
서용(時調).....가 람
釋迦塔의 來歷(傳説).....

第二號

말소리는 어디서
이렇게 나는가.....李 克 魯
地名 研究의 必要.....李 熙 昇
北關 사투리 몇.....李 常 春
잘못 쓰기 쉬운 文法李 鉉 鉉
조선사람은 조선말을
말마나 아는가.....崔 鉉 培
言語와 人間柳 根 錫
한글 教授에 대하여
字母中心主義일것을
提唱함.....李 浩 盛
피히테의 言語觀(下).....金 善 琪
日本의 常用漢字.....

第三號

한한생 스승(時調).....가 람
周時經 先生傳.....
周스승님을 생각함.....갈 예

日本 國字運動의 一瞥.....李 熙 昇
歐美列邦의 綴字
改正運動.....李 鉉 鉉
中國은 表音文字에서
表音 文字로.....李 克 魯
워트크의 文字革命李 允 宰
한글 적기의 바깥.....金 允 經
마춤법의 合理化申 明 均
綴字法 原理金 善 琪
새 바침에 關한 諸 問題의
解決과 實例의 總覽.....崔 鉉 培
變格活用의 例이 은 제
사이스소리의 예와 이치.....김 운 경

第四號

이름씨(名詞)의 細說崔 鉉 培
조선말의 목소리李 克 魯
ㅎ△◇을 다시 쓰자.....李 鐸
말과 글은 有限의 無限安 浩 相
한글 教授法에 對하여
字母中心主義일것을
提唱함.....李 浩 盛
無識(공트).....李 泰 俊
科學 術語와 우리말

第五號

四百年前의 金屬活字.....
訓民正音의 創定李 允 宰
訓民正音 글자의
모양과 발음에 대하여.....崔 鉉 培
訓民正音의 獨特한
聲音 觀察.....李 克 魯
한글 起源 諸說.....金 允 經
한글날을 國歷으로 換算.....李 命 七
한글 노래李 鉉 鉉
불완전한 이름씨에
대하여.....崔 鉉 培
豪雄의 意氣(逸話).....金 克 培

第六號

綴字法의 理論과 實際.....李 鉉 鉉
한글의 經過李 秉 岐
한글 研究 材料의 文獻金 允 經
豪雄의 意氣(逸話)金 克 培

第七號

풀이씨의 끝바깥에
關한 論(上).....崔 鉉 培
대명사에 대하여鄭 烈 模
綴字法의 理論과 實際.....李 鉉 鉉
俗樂 歌詞.....
壯快한 南將軍(逸話)金 克 培
俗談語彙(1).....

第八號

朴勝彬氏의 所謂 硬音이란
歷史上 聲音上 아무
根據가 없다.....申 明 均
「ㅎ」바침 問題李 熙 昇
풀이씨의 끝바깥에
關한論(下).....崔 鉉 培

第九號

硬音의 本質金 善 琪
朴勝彬氏의 主眼이 과연
從來 慣用에 가까운
平易한것인가.....崔 鉉 培
소리들이 만나면
어찌 되나.....李 克 魯
俗談 語彙(2)
帛針文(옛자글)
行營, 穩城, 海州 사투리吳 世 濬